

1. 상춘곡

(가) (홍진)에 못친 분네 이내 生涯(생애) 엇더흐고,
 넷 사름 風流(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山林(산림)에 못쳐 이셔 至樂(지락)을 맛들 것가.
 數間茅屋(수간 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앞피 두고,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에 風月主人(풍월 주인) 되어서라.

(나)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 행화)는 夕陽裏(석양리)에 띄어 있고,
 綠楊芳草(녹양 방초)는 細雨中(세우 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 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현스럽다. 수
 풀에 우는 새는 春氣(춘기)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다) 物我一體(물아 일체)어니, 興(흥)이이 다를소냐.
 柴扉(시비)에 거러 보고, 亭子(정자)에 안자 보니,
 逍遙吟詠(소요 음영)하야, 山日(산일)이 寂寂(적적)흔디,
 閒中眞味(한중 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라) 이바 니웃드라, 山水(산수)구경 가자스라.
 踏青(답청)으란 오늘 흐고, 浴沂(욕기)란 來日(來日)흐새.
 아춤에 採山(채산)흐고, 나조히 釣水(조수)흐새.

(마) 罽(끼) 피여 닉은 술을 葛巾(갈건)으로 밧타 노코,
 꽃나모 가지 것거, 수노코 먹으리라.
 和風(화풍)이 건듯 부러 綠水(녹수)를 건너오니,
 清香(청향)은 잔에 지고, 落紅(낙홍)은 옷새 진다.

세상에 묻혀 사는 분들이여. 이 나의 생활이 어떠한가.
 옛 사람들의 운치 있는 생활을 내가 미칠까 못미칠까?
 세상의 남자로 태어난 몸으로서 나만한 사람이 많건마는
 왜 자연에 묻혀 사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몇 간쯤 되는 초가집을 맑은 시냇물 앞에 지어 놓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거진 속에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엇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저녁 햇빛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과 아름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재단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
 조물주의 신비스러운 솜씨가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수풀에서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끝내 이기지 못하여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 모습이로다.

자연과 내가 한 몸이거니 흥겨움이야 다르겠는가?
 사립문 주변을 걷기도 하고 정자에 앉아 보기도 하니,
 천천히 거닐며 시를 읊조려 산 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로운 가운데 참된 즐거움을 아는 이 없이 혼자로구나.

여보게 이웃 사람들이여, 산수 구경을 가자꾸나.
 산책은 오늘 하고 냇물에서 목욕하는 것은 내일 하세.
 아침에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 낚시질을 하세.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로 놓고,
 꽃나무 가지를 꺾어 잔 수를 세면서 먹으리라.
 화창한 바람이 문득 불어서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맑은 향기는 술잔에 가득하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술동이 안이 비었으면 나에게 아뢰어라.
 사동을 시켜서 술집에서 술을 사 가지고,
 어른은 지팡이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 시냇가에 혼자 앉아,
 고운 모래가 비치는 맑은 물에 잔을 씻어 술을 부어 들고,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내려오는 것이 복숭아 꽃이로다.
 무릉도원이 가까이 있구나. 저 들이 바로 그곳인가?

소나무 사이 좁은 길로 진달래꽃을 손에 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수많은 촌락들이 곳곳에 벌여 있네.
 안개와 놀과 빛나는 햇살은 아름다운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엇그제까지도 거뭇거뭇했던 들판이 봄빛이 넘치는구나.

공명과 부귀가 모두 나를 꺼리니,
 아름다운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오.
 비록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잡스러운 생각은 아니 하네.
 아무튼 한평생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이만하면 족하지 않겠는가?

(준중)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小童(소동) 아히드려 酒家(주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微吟緩步(미음 완보)하야 시냇 ㄹ의 호자 안자,
 明沙(명사)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清流(청류)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桃花(도화) 이 로다.
 武陵(무릉)이 갓갑도다. 저 리이 권 거인고.

(바) 松間(송간) 細路(세로)에 杜鵑花(두견화)를 부치 들고,
 峰頭(봉두)에 급피 올라 구름 소귀 안자 보니,
 千村萬落(천촌 만락)이 곳곳이 버려 잇네.
 煙霞日輝(연하 일휘)는 錦繡(금수)를 재펴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有餘(유여)홀샤.

(사) 功名(공명)도 날 썬우고, 富貴(부귀)도 날 썬우니,
 淸風明月(청풍 명월) 外(외)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簞瓢陋巷(단포 누항)에 핫튼 혜음 아니 헉늬.
 아모타, 百年行樂(백년 행락)이 이만흔들 엇지헉리.

2. 면앙정가

(가) (무등산) 흔 활기 궤히 동 다히로 버더 이셔

멀리 세쳐 와 霽月峯(제월봉)의 되어거늘

無邊大野(무변대야)의 모습 짐작 흐노라.

일곱 구비 흙더 움쳐 므득므득 버렸는 듯.

가운데 구비는 굵기 든 늘근 놓이

선증을 곳 썩야 머리를 언쳐시니

(나) 너르바회 우희 松竹(송죽)을 헤혀고

亭子(정자)를 언쳐시니 구름 든 靑鶴(청학)이

千里(천 리)를 가리라 두 노래 버렸는 듯.

(다) 玉泉山(옥천산) 龍泉山(용천산) 느린 물이

亭子(정자) 압 너븐 들히 울울히 퍼진 드시

넙꺼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디 마나

雙龍(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치 펴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빙얏바

돋는 듯 썩로는 듯 밤늦으로 흐르는 듯

(라) 므조친 沙汀(사정)은 눈긋치 퍼졌거든

어즈러운 기러기는 므스거슬 어르노라

안즈락 누리락 모드락 훗트락

蘆花(노화)를 스이 두고 우러곰 좇니는노.

(마) 너븐 길 밧기요 긴 하늘 아릭

두르고 쏘즌 거슨 궤힌가 屏風(병풍)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 듯 느즌 듯 근는 듯 닳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즈러운 가운데 일흠는 양하야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어 버리고 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끝없이 넓은 들판에 무슨 속셈을 가지고

일곱 구비가 한 곳에 움츠러어 무더기무더기 벌여 놓은 듯.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뜻잡을 이제 막 깨어 머리를 얹어 놓고 있는 것 같으니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소나무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을 탄 푸른 학이

천 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리고 있는 듯.

옥천산, 용천산 흘러내리는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끊임없이 펼쳐진 듯이,

넓거든 길지 말거나 프르거든 희지나 말지.

두 마리 용이 몸을 뒤틀고 있는 듯 긴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이 바빠서

달리는 듯 따라가는 듯 밤늦으로 흐르는 듯.

물을 따라 있는 모래밭은 눈같이 하얗게 펼쳐져 있는데

어지럽게 나는 갈매기는 무엇을 어르느라고

앉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

고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따라다니는가.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숨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유명한 척하여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하게 서 있는 것이
추월산 머리를 만들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공중에 늘어서 있으니,
멀고 가까운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하구나.

흰 구름 뿌연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산 아지랑이로구나.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고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먼 하늘로 떠나기도 하고
넓은 들로 건너가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질기도 하고
석양과 섞이어 가랑비조차 뿌린다.

뚜껑 없는 가마를 재촉하여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푸른 버드나무에서 우는 피꼬리는
온갖 교태를 부리고 있구나.
나무 사이가 우거져서 녹음이 영긴 때에,
긴 난간에 기대어 길게 기지개를 켜니,
물 위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이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된서리가 견힌 후에 산빛이 수놓은 비단 같구나.
누렇게 익은 곡식은 또 어찌 넓은 들에 펼쳐져 있는가.
어부가 부는 피리도 흥을 못 이겨 달을 따라 불고 있느냐.

초목이 다 떨어진 후에 강산이 눈 속에 묻혔거늘
조물주가 아단스러워 눈과 얼음으로 꾸며내니
경궁 요대와 옥해 은산 같은 설경이 눈 아래 펼쳐졌구나.
하늘과 땅도 풍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로다.

속세를 떠나 왔어도 내 몸이 한가하지 않다.
이것도 보려고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쏘이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하늘도 짓티 아녀 옷독이 섰는 거시

(추월산) 머리 짓고

龍龜山(용구산) 夢仙山(몽선산) 佛臺山(불대산) 魚登山(어등산)

湧珍山(용진산) 錦城山(금성산)이 虛空(허공)에 버러거든

遠近(원근) 蒼崖(창애)의 머문 것도 하도 할샤.

(바) 흰구름 브흰 煙霞(연하) 프로니는 山嵐(산람)이라.

千巖(천암) 萬壑(만학)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느리거니 長空(장공)의 쉼나거니 廣野(광야)로 건너거니

프르락 불그락 여트락 디트락

斜陽(사양)과 섯거디어 細雨(세우)조차 쓰리는다.

(사) 藍輿(남여)를 비야 타고 솔 아리 구븐 길로

오며 가며 흥는 적의 綠楊(녹양)의 우는 黃鶯(황앵)

嬌態(교태) 겨워 흥는교야.

나모 새 즈즈지어 綠陰(녹음)이 열린 적의

百尺(백척) 欄干(난간)의 긴 조으름 내여 퍼니

水面(수면) 涼風(양풍)야 그칠 줄 모르는가.

(아) 큰 서리 싸딘 후의 산 빛치 錦繡(금수)로다.

黃雲(황운)은 쏘 엇디 萬頃(만경)에 퍼겨 디오.

漁笛(어적)도 흥을 계워 들릴 썩봐 브니는다.

(자) 草木(초목) 다 진 후의 江山(강산)이 미물커늘

造物(조물)리 현스 흥야 氷雪(빙설)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와 玉海銀山(옥해은산)이 眼底(안저)에 버러세라.

乾坤(건곤)도 가음열샤 간 대마다 경이로다.

(차) 人間(인간)을 쉼나와도 내몸이 겨를 업다.

이것도 보려 흥고 저것도 드르려코

브름도 혀려 흥고 들도 마즈려코

밤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낚고

(시비)란 뉘 다드며 던 곳츠란 뉘 쓸려뇨.

아침이 낮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냐.

오늘리 不足(부족)커니 來日(내일)리라 有餘(유여)하라.

이 피히 안자 보고 더 피히 거러 보니

煩勞(번로)흔 ㅁ음의 ㅁ릴 일이 아조 업다.

쉴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히리아.

다만 흔 靑藜杖(청려장)이 다 ㅁ되여 가노미라

(카) 술이 너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블늑며 ㅁ이며 ㅁ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醉興(취흥)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트시랴.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츠락

을프락 ㅁ람ㅎ락 노혜로 놀거니

天地(천지)도 ㅁ고ㅁ고 日月(일월)도 ㅎ가ㅎ다.

羲皇(희황)을 모를러니 이 적이야 ㅁ로고야.

(타) 神仙(신선)이 ㅁ터턴지 이 ㅁ이야 ㅁ로고야.

江山風月(강산 풍월) 거늘리고 내 百年(백 년)을 다 누리면

岳陽樓(악양루) 상의 李太白(이태백)이 사라오다,

浩蕩(호탕) 情懷(정회)야 이에서 더 ㅎ소냐.

(파) 이 ㅁ이 이렇 ㅁ도 亦君恩(역군은)이샷다.

밤은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립문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겠는가.

아침에 시간이 모자랄 지경인데 저녁이라고 싫겠는가.

오늘의 시간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는가.

이 산에서 앉아 보고 저 산에서 걸어 보니

번거로운 마음이지만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쉴 사이가 없는데 사람들에게 길이나마 알려 줄 수가 있겠는가.

다만 명아주 대로 만든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술이 익어 가니 벗이라고 없겠는가.

노래를 부르게 하며 악기를 타고 켜게 하며 방울을 흔들며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거나

근심이라고 있겠으며 시름이라고 붙어 있으랴.

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고 뒤로 젖히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휘파람을 불기도 하면서 마음놓고 놀거나

천지도 넓고 넓으며 세월도 한가하다.

태평 성대를 잘 몰랐더니 지금이 바로 그것이로구나.

신선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더니 내가 바로 신선이로구나.

자연을 거느리고 내 한평생을 다 누리면

조망이 좋기로 이름난 악양루 위의 이태백이 살아 온다한들
넓고 큰 마음이야 이것보다 더 하겠는가.

이 ㅁ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도다.



3. 사미인곡

이 몸이 태어날 때에 임금을 따라 태어나니
한 평생 함께 살아갈 인연이며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나는 오직 젊어있고 임은 오로지 나만을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곳이 다시 없다.
평생에 원하데 임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였더니
늘어서야 무슨 일로 외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고.

옛그제는 입을 모시고 광한전 궁중에 올라있었더니
그 동안에 어찌하여 속세에 내려 왔느냐.
내려 올 때 빛은 머리가 형클어진 지 삼 년일새.
연지와 분이 있지마는 누구를 위하여 곱게 단장할 것인가.
마음에 맺힌 근심이 겹겹으로 싸여있어
짓는 것이 한숨이요, 흐른 것이 눈물이라.

인생은 한정이 있는데 근심은 한이 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가는구나.
더웠다 서늘해졌다 하는 계절의 바뀔 때를 알아 지나갔다
가는 이내 다시 돌아오니
듣거니 보거니 하는 가운데 느낄 일도 많기도 하구나.

봄바람이 문득 불어 사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득이나 쌀쌀하고 담담한데 그윽히 풍겨오는 향기는 무슨
일인고.
황혼에 달이 따라와 베개 머리에 비치니
느껴 우는 듯 반가워하는 듯하니 이 달이 바로 임이신가 아
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 내어 임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꽃잎이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우거져 나무 그늘이 가렸
는데

(가)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싱 연분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접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터 노여 업다.

평평生싱애 願원호요디 혼터 네자 호앗더니,
늡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엇그제 님을 피셔 廣광寒한殿殿의 올랐더니,
그 더디 엇디호야 下하界계에 느러오니,

올 저기 비슨 머리 헛틀언 디 三삼年년일쇠.
臙연脂지 粉분 잇너마는 놀 위호야 고이 홀고.

마음의 미친 실음 疊疊疊疊이 빠혀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人人生싱은 有有限호호디 시름도 그지 업다.
無무心심호 歲歲月월은 물 흐르듯 호느고야.

炎염涼냥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나) 東동風풍이 건듯 부러 積적雪설을 헤터 내니,
窓창 밧긔 심근 梅미花화 두세 가지 피여세라.

긔득 冷냉淡담호호디 暗암香향은 므스 일고.
黃황昏혼의 들이 조차 벼마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梅미花화 것거 내여 님 겨신 터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다) 꽃 디고 새 님 나니 綠녹陰음이 쏘렛느디,

나幃위 寂적寞막하고 繡슈幕막이 뷔여 있다.
 芙부蓉용을 거더 노코 孔공雀작을 둘러 두니,
 긱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뻐던고.
 駕원駕양錦금 버혀 노코 五오色식線선 플터 내어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手슈品품은 ㄱ니와 制제度도도 ㄱ줄시고.
 珊산瑚호樹슈 지게 우히 白백玉옥函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바라보니,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千천리리 萬만리리 길히 뉘라셔 츠자 같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라) 흐르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널 제,
 危위樓루에 혼자 올라 水슈晶정簾념을 거든마리,
 東동山산의 들이 나고 北북極극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淸청光광을 띄여 내어 鳳봉凰황樓누의 붓티고져.
 樓누 우히 거러 두고 八팔荒황의 다 비최여,
 深심山산 窮궁곡곡 점나ㄱ티 핑그쇼셔.
(마) 乾건坤곤이 閉폐塞식하야 白백雪설이 흰 빗친 제,
 사름은ㄱ니와 놀새도 긱쳐 있다.
 瀟쇼湘상 南남畔반도 치오미 이리커든
 玉옥樓누 高고處처야 더욱 날너 ㅄ슴흐리.
 陽양春춘을 부쳐 내어 님 겨신 디 쏘이고져.
 茅모簷첨 비훤 히를 玉옥樓누의 올리고져.
 紅홍裳裳을 니피치고 翠취袖슈를 반만 거더
 日일暮모脩슈竹죽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님은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임이 없어 비단 커튼이 쓸쓸히 걸렸고 수놓은 장막만이 드러워져 텅 비어 있다.
 부용 꽃 무늬가 있는 방장을 걸어 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니
 가뜩이나 근심 걱정이 많은 데 날은 어찌 그리도 길던가.
 원앙새 무늬가 든 비단을 잘라놓고 오색실을 풀어내어
 금으로 만든 자로 재어서 임의 옷을 만들어 내니
 솜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크기도 딱 맞구나.

산호수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으로 만든 상자에 그 옷을 담아 얹혀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곳을 바라보니
 산인지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만리나 되는 길을 누가 찾아 갈고.
 가거든 이 함을 열어두고 나를 보신 듯이 반가워 하실까?

하룻밤 사이에 서리 내릴 무렵에 기러기가 울며 날아갈 때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걸어 놓으니
 등산에 달이 떠오르고 북극성이 보이므로
 임이신가 하여 반가워 하니 눈물이 절로 나다.
 저 맑은 달빛을 일으켜 내어 임이 계신 궁궐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임께서는 그것을 누각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에 다 비추어
 깊은 산골까지도 대낮같이 환하게 만드소서.

천지가 겨울의 추위에 얼어 생기가 막혀 흰 눈이 일색으로 덮혀 있을 때
 사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날짐승도 끊어져 있구나.
 따뜻한 지방이라 일컬어지는 중국에 있는 소상강 남쪽 언덕
 (전남 창평을 이룸)도 추움이 이와 같거늘
 하물며 북쪽 임 계신 곳이야 더욱 말해 무엇하랴.
 따뜻한 봄기운을 부쳐내어 임 계신 곳에 쏘이게 하고 싶다.
 초가집 처마에 비친 따뜻한 햇볕을 임 계신 궁궐에 올리고 싶다.
 붉은 치마를 여며 입고 푸른 소매를 반쯤 걸어 올려
 해는 저물었는데 대나무에 기대서서 이것저것 생각함이 많기도 많구나.
 짧은 겨울 해가 이내 넘어가고 긴 밤을 푹푹이 앉아

청사 초롱을 걸어둔 옆에 자개로 수놓은 공후를 놓아 놓고
꿈에나 입을 보려고 턱을 바치고 기대어 있으니
원앙새로 수놓은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썰고.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설흔 날
잠시라도 입 생각을 말아 가지고 이 시름을 잊으려 하여도
마음속에 맺혀 있어 뼈 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과 같은 명의가 열 명이 오더라도 이병을 어떻게 하리.
아 내 병이야 임의 탓이로다.
차리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대마다 앉아
향기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옮기고 싶구나.
임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임 따르려 하노라.

淸燈등 거론 것턱 鉤鉤筥公篋후 노하 두고,
꿈의나 님을 보려 턱 맞고 비겨시니,
鴈앙禽금도 츠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바) 흐르도 열두 새, 흔 들도 설흔 날,
저근덧 심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막음의 락쳐 이셔 骨골髓슈의 썩터시니,
扁편鵲작이 열히 오오다 이 병을 엇디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락 족족 안니다가,
향 므든 놀애로 님의 오식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츰려 흐노라.

4. 속미인곡

(가)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텨 상上 白玉경京을 엇디하야 니離別別하고,
 히 다 더 저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는고.
 (나) 어와 네여이고 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귀암즉 혼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너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구똥쨌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히니
 내 몸의 지은 죄 죄기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라
 설위 플터 헤니 조造物의 타시로다.
 (다) 글란 싱각 마오.
 (라) 락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기튼 얼굴이 편혹실 적 몇 날일고.
 춘春한寒 고평열熱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추秋일日동冬천天은 뒤라셔 피섯는고.
 죽粥조早반飯 조朝석夕 피 네와 기티 세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는고.
 (마) 님 다히 쇼消식息을 아므려나 아자 히니
 오늘도 거의로다. 너일이나 사름 올라.
 내 마음 둘 티 업다. 어드러로 가갓 말고.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임이 계신 곳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고?
 아 너로구나 내 말좀 들어보오.
 내 얼굴과 이 태도는 님의 사랑을 받음직 한가마는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너 참 이쁘다)라고 특별히 여
 기시기에
 나도 입을 믿어 딴 생각이 전혀 없이
 아양을 부리며 어지럽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낮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생각하니
 내 몸의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라.
 서러워 풀어 생각해보니 모두가 조물주의 탓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오.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입을 모시어서 임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같이 연약한 몸이 편혹실 때가 몇 날일꼬.
 이른 봄날의 추위와 여름철의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가을날 겨울날은 누가 모셨는고.
 아침밥을 먹기 전에 올리는 죽과 아침저녁 진지는 예전과
 같이 잘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가.
 임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 라도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 저물었구나 내일이라고 사름이 올까?
 내 마음 둘 곳이 없다. 어디로 갈까.

나무와 바위 등을 잡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높은 산에 올라
가니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또 무슨 일로 끼어있는가?
산천이 어두운데 일월을 어찌 바라보며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데 천리나 되는 먼 곳(임계신 곳)을
바라볼 수 있으랴.
차라리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보려고 하니
바람과 불결로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고.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초가집 찬 잠자리에 한 밤중에 돌아오니
벽 가운데 걸려있는 등불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가.
산을 오르내리며 강가를 헤매며 시름없이 왔다갔다하니
잠깐 사이 힘이 지쳐 땀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입을 보니

옥같이 곱던 얼굴이 반도 넘게 늙었구나.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을 실컷 시워려고 하였더니
눈물이 쏟아져 말도 못하고
정을 풀지 못하여 목이 맨다.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왜 깨우는고.

아아, 헛된 일로다. 내 임이 어디 갔는고?
꿈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 보니,
불쌍한 그림자만이 나를 따라올 뿐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나 되어
임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치리라.

각시님, 달은커녕 곳은 비나 되십시오.

잡거니 밀거니 눅픈 뒤희 올라가니
구름은쿠니와 안개는 므스일고.
산 천川이 어둡거니 일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척尺을 모르거든 천千里를 바라보랴.
출하리 물의 가 빅 길히나 보자 하니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딴 가고 빈 배만 걸렸느니.
강江天의 혼자 서서 디는 히를 구버보니
넘다히 쇼消息이 더욱 아득흔더이고.

(비) 모茅淸簷 촌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半벽壁淸靑등燈은 놀 위하야 빛갓는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니니

저근덧 녀力진盡하야 땀을 잠깐 드니
정精성誠이 지극하야 꿈의 입을 보니
옥玉 玉톤 얼굴이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막음의 머근 말슴 슬크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흐며
정情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떼여하니
오던된 계鷄성聲의 잠은 엇디 씨뒸던고.

(사) 어와, 허虛스事로다. 이 님이 어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쏘이로다.

출하리 쇠여디여 낙落월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아) 각시님 들이야쿠니와 구준 비나 되쇼셔.

5. 관동별곡

(서사1) 강湖호애 病병이 김피 竹筠林님의 누엇더니,

關關東동 八팔百백리니에 方方面면을 맞디시니,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延연秋秋門門 드리드라 慶경會회 南남門門 바라보며,

下하直직고 물너나니 玉옥節절이 알피 족다.

平평丘丘驛驛 물을 마라 黑흑水水 도라드니,

蟾섬江江은 어디메오, 雉티岳岳이 여기로다.

(서사2) 昭쇼陽陽江江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孤고臣신 去거國國에 白백髮髮도 하도 할샤.

東동州州 밤 계오 새와 北북寬寬관亭亭의 올라흐니,

三삼角각山山 第一일峯봉이 ㅎ마면 되리로다.

弓궁王왕 大대關關 터희 烏오鵲작이 지지피니,

千천古古 興흥亡망을 아는다, 물으는다.

淮회陽陽 네 일흠이 마초아 ㄹ틀시고.

汲汲長長 孺유 風풍彩彩 치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본사1-1) 營營中中이 無無事事스 ㅎ고 時時節節이 三삼月월인 제,

花화川川 시내길히 楓풍岳岳이 버더 있다.

行행裝裝을 다 썰티고 石石徑徑의 막대 디피,

百백川川 洞洞 겨티 두고 萬萬瀑瀑 洞洞 드러가니,

銀은 ㄹ튼 무지개, 玉옥 ㄹ튼 龍龍의 초리,

섯돌며 썸는 소리 十십里리의 즈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본사1-2) 金金剛剛江江臺臺 밋 萬萬層층의 仙仙鶴鶴 학이 샷기 치니

春春風風 玉玉笛笛 聲聲의 첫음을 씨뎡던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이 되어 자연과 더불어 지내고 있는데,

임금님께서 800리나 되는 강원도 땅의 관찰사의 직분을 맡겨 주시니

아. 임금님의 은혜야 갈수록 망극하구나.

경복궁의 서쪽 문인 연추문으로 달려 들어가 경희루 남문 쪽을 바라보며

임금께 하직인사를 하고 물러나오니

관찰사의 상징물(옥절)이 앞에 서 있다.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드니

원주(섬강)은 어디쯤이고? 바로 치악산이 여기로구나.

소양강 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임금 곁을 떠난 외로운 신하가 백발도 참 많구나.

동주에서 밤을 새우고 북관정에 올라보니

서울의 삼각산 제일봉이 웬만하면 보일 것 같구나.

궁에 왕의 대궐 터에 까마귀가 지저귀니

한 나라의 흥망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곳은 옛날 중국의 회양이라는 지명과 똑 같구나

중국 회양 땅의 태수였던 급장유의 선정을 다시 볼 것이 아닌가?

감영 안이 무사하고 시절이 삼월이니

화천 시내길이 금강산으로 뻗어있다.

행장을 간단히 하고 돌길에 지팡이를 짚고

백천동을 지나서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와 옥 같은 용의 꼬리 같은 폭포가

섞여 돌며 내뿜는 소리가 십리밖에 가지 퍼지니

멀리서 들을 때는 천둥소리 같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눈이 날리는 것 같이 아름답구나.

금강대 맨 꼭대기에 학이 새끼를 치니

봄바람에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에 선잠을 깨었던지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듯한 학이 공중에 솟아 뜨니
서호의 옛주인이었던 임포를 반기는 듯 나를 반겨 넘나들며
노는 듯 하구나.

소향로봉과 대향로봉을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혈대에 다시 올라 앉으니
여산 같이 아름다운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서 다 보인다.
아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저 수많은 봉우리들은 나는 듯 하면서도 뛰는 듯도 하고,
우뚝 섰으면서도 솟은 듯 하니 참으로 장관이로다.
또, 연꽃을 꽃아 놓은 듯 백옥을 묶어 놓은 듯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을 괴어 놓은 듯 하구나.
높기도 하구나 망고대, 외롭기도 하구나 혈망봉이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아뢰려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 가
너같이 높은 기상을 (지조가 높은 것이 또 있겠는가?)

개심대에 다시 올라 중향성을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똑똑히 헤아려 보니
봉마다 땀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지,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흠어 내어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생긴 모양도 각양각색 다양도 하구나.
천지가 생겨 날 때에 저절로 이루어 진 것이지만
이제 와서 보니 모두가 뜻이 있게 만들어 진 듯 하여 정답기
도 정답구나.

금강산에 최고봉인 비로봉에 올라 본 사람이 누구이신가.
(공자님은 동산에 올라 노나라가 작음을 알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다고 했으니) 동산과 태산에 어느 것이 비로봉 보
다 높던가.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하물며 넓거나 넓은 천하를 공자는 어찌하여 작다고 했는가.
아 공자와 같은 이 높고 넓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 있겠는
가. (공자의 호연지기를 도저히 따를 수 없네.)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감이 무엇이 괴이할 까?

호衣의玄纁裳상이 半반空공의 소소 쓰니,
西서湖호 넷 主주人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본사1-3) 小소香향爐노 大대香향爐노 눈 아래 구버보고,
正정陽양寺스 眞진歇혈臺디 고타 올라 안준마리,
廬녀山산 眞진面면目목이 여기야 다 뵈는다.

어와, 造造化화翁翁이 헌스토 헌스홀샤.

늘거든 췌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芙부蓉용을 고갯는 듯, 白백玉옥을 못갯는 듯,

東동溟명을 박차는 듯, 北북極극을 괴왓는 듯.

눅힐시고 望망高고臺디, 외로울샤 穴혈望망峰봉이

하늘의 추미러 무슨 일을 스로리라

千천萬만劫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 ㄹㅌ니 쯔 잇는가.

(본사1-4) 開기心심臺디 고타 올라 衆중香향城성 바라보며,

萬만二이千천峯봉을 歷歷歷歷히 혀여히니

峰봉마다 밋쳐 잇고 긋마다 서린 기운,

몹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몹디 마나.

더 기운 흐터 내야 人인傑걸을 ㄹㄷ고쟈.

形형容용도 그지업고 體테勢세도 하도 할샤.

天텨地디 삼기실 제 自즈然연이 ㄹ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有有情정도 有有情정홀샤.

毗비盧로峰봉 上上上上頭두의 올라 보니 ㄹ ㄹ신고.

東동山산 泰태山산이 어느야 ㄹ뎡뎡고.

魯魯國국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넙거나 넙은 天텨下하 ㄹ찌하야 ㄹ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흐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흐거니 ㄹ려가미 ㄹ고이홀가.

(본사1-5) 원통골 ʼ는 길로 獅스子즈峰봉을 츠자가니,
그 알퓌 너러바회 化화龍룡쇠 되어세라.
千千年年 老노龍룡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晝晝夜야의 흘너 내여 滄창海회에 니어시니,
風풍雲운을 언제 어더 三삼日일雨우를 디련는다.
陰음崖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본사1-6) 磨磨訶하衍衍 妙묘吉길祥祥 雁안門문재 너머 디여,
외나모 뼈근 드리 佛블頂頂臺臺디 올라흐니,
千千尋심絶絶壁벽을 半반空공에 세여 두고,
銀은河하水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ᄃᄂ티 플터이서 飛ᄃᄂ티 거러시니,
圖도經경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李니謫덕仙선 이제 이서 고티 의논하게 되면,
廬너山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흐려니.

(본사2-1) 山산中中을 ʼ망 보라, 東동海회에 가자스라.
藍남輿여 緩완步보호야 山山映映樓樓의 올라흐니,
 甕籠籠 碧벽溪계와 數수聲성 啼啼鳥鳥는 離離別別을 怨원호는 듯,
旌정旗기를 썰티니 五오色색이 넘노는 듯,
鼓고角각을 섯부니 海회雲운이 다 것는 듯.
鳴명沙사길 니근 물이 醉취仙선을 빗기 시러,
바다홀 것티 두고 海회棠棠花화로 드러가니,
白백鷗구야 ʼ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는.

(본사2-2) 金금蘭난窟굴 도라드려 叢총石석亭亭 올라흐니,
白백玉옥樓樓 남은 기동 다만 네히 서 잇고야.
工공垂垂의 성녕인가, 鬼鬼斧부로 다드문가.
구ᄃᄂ야 六육面면은 ʼ어슬 象상똥똥고.

(본사2-3) 高고城성을란 더만 두고 三삼日일浦포를 츠자가니,

원통골의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화룡소가 되었구나.
마치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구비구비 서려 있는 것 같이
밤낮으로 물을 흘려 내어 넓은 바다에 이었으니
(저용은) 바람과 구름은 언제 얻어 흡족한 비를 내리려느냐.
그늘진 낭떠러지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려무나.

마하연 묘길상 안재문을 넘어 내려가
썩은 외나무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오르니
(조물주가)천길 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큰 구비를 마디마디 잘라내어
실처럼 풀어서 베처럼 걸어 놓았으니
산수도경에는 열두 굽이라 하였으나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되어 보인다.
만일 이백이 지금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 폭포가 여기보다 낫다는 말은 못 할 것이다.

산중의 경치만 매양 보겠는가. 이제는 동해로 가자꾸나.
남녀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산영루에 오르니
눈부시게 반짝이는 시냇물과 여러 소리로 우짖는 산새는 나
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 하고
갯발을 휘날리니 오색 기폭이 넘나드는 듯 하며
북과 나팔을 쉼어 부니 바닷 구름이 다 걷히는 듯 하다.

모래 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작자)을 비스듬히 태우고
해변의 해당화 핀 꽃밭으로 들어가니
백구야 날지 마라. 내가 벗인 줄 어찌 아느냐.

금낭굴 돌아드려 총석정에 올라가니
백옥루의 기둥이 네 개만 서있는 듯 하구나.
옛날 중국의 명장인 공수가 만든 작품인가. 조화를 부리는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태여 육면으로 된 돌기둥은 무엇을 본땀던가?

고성을 저만큼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그 남쪽 봉우리 벵랑에 '영랑도 만석행'이라고 쓴 붉은 글씨가 뚜렷이 남아 있으나, 이 글을 쓴 사선은 어디에 갔는가?
여기서 사흘 동안 머무른 뒤에 어디 가서 또 머물렀던고.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는가.
청간정 만경대를 비롯하여 몇 군데서 앉아 놀았던가?

배꽃은 벌써 지고 소쩍새 슬피 울 때
낙산사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해돋이를 보려고 한 밤중쯤 일어나니,

상서로운 구름이 몽게몽게 피어나는 듯
바다에서 솟아오를 때에는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하더니
하늘에 치솟아 뜨니 가는 터럭도 헤아릴 만큼 밝도다.
혹시나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무랴까 두렵구나.
이백은 어디 가고 (간신배가 임금의 은총을 가릴까 염려스럽다는) 시구만 남았느냐.
천지간 굉장한 소식이 자세히도 표현되었구나.

저녁 햇빛이 비껴드는 현산의 철쭉꽃을 이어 밟아
우개지륜(신선이냐 귀인이냐) 타다는)타고 경포를 내려가니
십리나 뻗어 있는 얼음 같이 흰 비단을 다리고 다시 다린 것
같은 맑고 잔잔한 호숫물이
큰 소나무 숲으로 둘러싼 속에 한껏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잔잔하기도 잔잔하여 물 속의 모래알까지도 헤아릴
만 하구나.
한 척의 배를 띄워 호수를 건너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동해가 거기로구나.
조용하구나 경포대의 기상이여. 넓고 아득하구나 저 동해의
경개여.

이 곳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과연 고려 우왕 때 박신과 홍장의 사랑이 호사스런 풍류이
기도 하구나.

강릉 대도호부의 풍속이 좋기도 하구나.
충신 효자 열녀를 표창하기 위하여 세운 정문이 동네마다
널렸으니
즐비하게 늘어선 집마다 모두 벼슬을 줄 만하다는 요순 시
절의 태평성대가 이제도 있다고 하겠도다.

단書서는 宛宛然연호디 四스仙선은 어디 가니,
에 사흘 머문 後후의 어디 가 또 머물고.
仙선遊유潭담 永영郎랑湖호 거기나 가 잇는가.
淸淸澗간亭딩 萬만景경臺臺디 몇 고디 안뎡던고.
(본사2-4) 梨니花화는 벌써 디고 접동새 슬피 울 제,

洛洛山山 東동畔반으로 義의相상臺臺디에 올라 안자,
日日出출을 보리라 밤뎡만 니러호니,
祥상雲운이 집피는 동, 六육龍龍이 바되는 동,
바다히 썬날 제는 萬만國국이 일위더니,
天霆中뎡의 티쓰니 毫호髮발을 헤리로다.
아마도 隼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詩시仙선은 어디 가고 咳히唾타만 나맛느니
天霆地디間간 壯장호 奇별 ぞ셔히도 훌셔이고.

(본사2-5) 斜사陽양 峴현山산의 擲터躑躅을 으니블와
羽우蓋개芝지輪륜이 鏡경浦포로 느려가니,
十십里리 氷빙紈환을 다리고 고터 다려,
長당松송 울흔 소개 슬크장 퍼더시니,
물결도 차도 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孤고舟주 解히纜람호야 亭딩子즈 우히 올라가니,
江강門문橋교 너문 거터 大대洋양이 거기로다.
從동容용호다 이 氣기像상, 闊활遠원호다 더 境境界계,
이도곤 ㄱ준 디 또 어디 잇닷 말고.
紅홍粧장 古고事사를 현스타 흐리로다.

(본사2-6) 江강陵능 大대都도護호 風풍俗속이 도흘시고,
節결孝효旌정門문이 골골이 버러시니
比비屋옥可가封봉이 이제도 잇다 홀다.

황정경 한 글자를 어이하여 잘못 읽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잠시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 보오.”

북두 칠성과 같은 국자를 기울려 동해물 같은 술을 부어
저 먹고 나에게도 먹이거늘 서너 잔을 기울이니
온화한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 양 겨드랑이를 추어올리니
아득한 하늘도 웬 만하면 날 것같구나.

“이 신선주를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눠
온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 때에야 다시 만나 또 한잔하자꾸나”
말이 끝나자 신선은 학을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니
공중에 옥통소 소리가 어제던가 그제던가

어렴풋하니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는 데 하물며 그 끝인들 어찌 알리.
명월이 온 세상에 아니 비친 곳이 없다.

황庭淸經경 一일字즈를 엿디 그릇 닦거 두고,
人인間간의 내려와서 우리를 쫓오는다.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혼 잔 머거 보오.
北북斗두星성 기우려 滄창海히水슈 부어 내여,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和화風풍이 翳습翳습흐야 兩냥腋익을 추혀 드니,
九구萬만리리 長당空공에 저기면 놀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四스海히에 고로 논화,
億억萬만 蒼창生싱을 다 醉취케 밍근 後후의,
그제야 고터 맛나 쏘 혼 잔 흥갓고야.
말 디자 鶴학을 타고 九구空공의 올라가니,
空공中중 玉옥簫쇼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결사2-2) 나도 즘을 썩여 바다흘 구벼보니,
기희를 모르거니 人인들 엿디 알리.
明명月월이 千천山山萬만落낙의 아니 비친 디 업다.

6. 성산별곡

(가) 었던 디날 손이 (성산)의 머물며서
 棲霞堂(서하당) 息影亭(식영정) 主人(주인)아 내 말 듯소.
 人生(인생) 世間(세간)의 도흔 일 하건마는
 었디흔 江山(강산)을 가디록 나이 너겨
 寂寞(적막) 山中(산중)의 들고 아니 나시논고
 松根(송근)을 다시 썬고 竹上(죽상)의 자리 보아
 저근덧 올라 안자 었딘고 다시 보니
 天邊(천변)의 썬는 구름 瑞石(서석)을 집을 사마
 나는 듯 드는 양이 主人(주인)과 었더흔고
 滄溪(창계) 흰 물결이 亭子(정자) 알퐁 둘러시니
 天孫(천손) 雲錦(운금)을 누라셔 버혀 내여
 닳는 듯 퍼티는 듯 현스토 현스홀샤
 山中(산중)의 冊曆(책력) 업서 四時(사시)를 모르더니
 눈 아래 헤틴 景(경)이 철철이 절노 나니
 듯거니 보거니 일마다 仙間(선간)이라.

(나) 梅窓(매창) 아적 베틀 香氣(향기)에 잠을 썬니
 山翁(산옹)의 희을 일이 곳 업도 아니흐다.
 울 밧 陽地(양지) 편외 외씨를 썬허 두고
 미거니 도도거니 빗김의 달화 내니
 靑門故事(청문고사)를 이제도 잇다 홀다.
 芒鞋(망혜)를 뵈야 신고 竹杖(죽장)을 훗더디니
 桃花(도화) 핀 시내길히 防草洲(방초주)의 니어세라.
 닳 붓근 明鏡(명경) 中(중) 절로 그린 石屏風(석병풍)
 그림재를 베틀 사마 西河(서하)로 흠의 가니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석영정의 주인아 내 말을 들어 보소.
 인간 세상에 좋은 일이 많건마는,
 어찌 한 강산을 갈수록 낮게 여겨

적막한 산중에 들어가고 아니 나오시는가.
 솔뿌리를 다시 썬고 대나무 침대에 자리를 보아.
 잠시 올라 앉아 어떤가 하고 다시 보니,
 하늘가에 떠 있는 구름이 서석을 집을 삼아.
 나가는 듯하다가 들어가는 모습이 주인과 어떠한가.

시내의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둘러 있으니,
 하늘의 은하수를 누가 베어 내어,
 잇는 듯 펼쳐 놓은 듯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산 속에 달력이 얼어서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 아래 헤친 경치가 철을 따라 절로 생겨나니.
 듣고 보는 것이 모두 신선이 사는 세상이로다.

매창 아침별의 향기에 잠을 깨니.
 산늬은이의 할 일이 아주 없지도 아니하다.
 울타리 밑 양지 편에 오이씨를 뿌려 두고,
 김을 매고, 북을 두우면서 비 온 김에 가꾸어 내니,

청문의 옛일이 지금도 있다 할 것이로다.
 짚신을 죄어 신고 대나무 지팡이를 흠어 짚으니,
 도화 핀 시내길에 방초주에 이어졌구나.
 잘 닳은 거울 속에 저절로 그린 돌병풍,
 그림자를 베틀삼아 서하로 함께 가니,

무릉도원이 어디인가. 여기가 바로 그 곳이로다.

남풍이 문득 불어 녹음을 헤쳐 내니,
철을 아는 꾀꼬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희황 베개 위에 선잠을 얼핏 깨니,
공중의 젖은 난간이 물 위에 떠 있구나.

삼베옷을 여며 입고 갈건을 비껴 쓰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기대면서 보는 것이 고기로다.
하룻밤 비 온 뒤에 붉은 연꽃과 흰 연꽃이 섞여 피니,
바람기가 없어서 모든 산이 향기로다.
염계를 마주하여 태극설을 묻는 듯,
태을진인이 구슬 옥자를 헤쳐 놓은 듯.

노자암을 건너보며 자미탄을 곁에 두고,
큰 소나무를 차일삼아 돌길에 앉으니,
인간 세상의 유월이 여기는 가을이로구나.
청강에 떠있는 오리가 흰 모래에 옮겨 앉아,
흰 갈매기를 벗삼고 잠깐 줄을 모르나니,
무심하고 한가함이 주인과 비교해 어떠한가.

오동나무 사이로 가을달이 사경에 돌아 오니,
천암만학이 낮보다도 더 아름답구나.
호주의 수정궁을 누가 옮겨왔는가.
은하수를 뛰어 건너 광한전에 올라 있는 듯.

한 쌍의 늙은 소나무를 조대에 세워 놓고,
그 아래에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니,
홍료화 백빈주를 어느 사이에 지났길래.

환벽당 용의 못이 뱃머리에 닿았구나.
푸른 풀이 우거진 강변에서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의 흥을 못 이겨 피리를 비껴 부니,

(도원)은 어드매오 武陵(무릉)이 여기로다

(다) 南風(남풍)이 건듯 부러 綠陰(녹음)을 헤쳐 내니

節(절) 아는 꾀꼬리는 어드러서 오뎀던고

羲皇(희황) 베크기 우히 풋잠을 얼핏 쉰니

空中(공중) 저즌 欄干(난간) 물 우히 쉰 잇고야

麻衣(마의)를 니미 츄고 葛巾(갈건)을 기우 쓰고

구브락 비기락 보논 거시 고기로다

하룻밤 빗기운의 紅白蓮(홍백련)이 섰거 피니

바람의 업서서 萬山(만산)이 향기로다

溪(염계)를 마조 보와 太極(태극)을 못줍는 듯

太乙真人(태을진인)이 玉字(옥자)를 헤쳐는 듯

노자암 건너 보며 자미탄 겨퓌 두고

長松(장송)을 遮日(차일)사마 石逕(석경)의 안자하니

人間(인간) 六月(유월)이 여기는 三秋(삼추)로다.

淸江(청강)의 섰는 올히 白沙(백사)의 올마 안자

白鷗(백구)를 벗을 삼고 줌 쉰 줄 모르나니

無心(무심)코 閑暇(한가)히미 主人(주인)과 엇더하니.

(라) 梧桐(오동) 서리들이 四更(사경)의 도다 오니

千巖萬壑(천암만학)이 나진들 그러홀가.

湖洲(호주) 水晶宮(수정궁)을 뉘라셔 옮겨 온고.

銀河(은하)를 쉰여 건너 廣寒殿(광한전)의 올랐는 듯

썩마즌 늘근 술란 釣臺(조대)에 세여 두고

그 아래 비를 쉰워 갈대로 더더 두니

紅蓼花(홍료화) 白蘋洲(백빈주) 어느 스이 디나관티

環碧堂(환벽당) 龍(용)의 소히 뱃머리에 다하세라.

淸江(청강) 綠草邊(녹초변)의 쇼 머기는 아히들이

夕陽(석양)의 어위 계워 短笛(단적)을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깬야 니러날 듯
 낮기에 나온 鶴(학)이 제 기슬 더더 두고
 半空(반공)의 소소 쓸 듯
 蘇仙(소선) 赤壁(적벽)은 秋七月(추칠월)이 도타 호되
 八月(팔월) 十五夜(십오야)를 모다 었디 과호는고.
 織雲(섬운)이 四捲(사권)호고 물결이 채 잔 적의
 하늘의 도든 들이 술 우히 걸려거든
 잡다가 싸딘 줄이 謫仙(적선)이 현사홀샤
 (마) 空山(공산)의 싸힌 넘흘 朔風(삭풍)이 거두 부러
 제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모라오니
 天公(천공)이 호스로와 玉(옥)으로 고졸 지어
 萬樹千林(만수천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앞 여흘 마리 어러 獨木橋(독목교) 빗겼는디
 막대 멘 늘근 중이 어너 털로 간닷말고.
 山翁(산옹)의 이 富貴(부귀)를 넘드려 현스 마오
 瓊瑤窟(경요굴) 銀世界(은세계)를 츠즈리 이실세라
 (바) 山中(산중)의 벗이 업서 漢紀(한기)를 빠하 두고
 萬古(만고) 人物(인물)을 거스리 헤여히니
 聖賢(성현)도 만커니와 豪傑(호걸)도 하도 할샤
 하늘 삼기실 제 곳 無心(무심) 흘가마는
 었디홀 時運(시운)이 일락 배락 호았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들움도 그지업다
 箕山(기산)의 늘근 고블 귀는 었디 씻듯던고
 박소리 핀계호고 조장이 7장 높다
 人心(인심)이 늦 7트야 보도록 새롭거늘
 世事(세사)는 구름이라 머호도 모홀시고
 었그제 비즌 술이 어도록 니건느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을 깨어 일어날 듯.
 연기 기운에 나온 학이 제 집을 버려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소동파의 적벽부에는 가을 칠월이 좋다 하였으니.
 팔월 보름밤을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잔구름이 흩어지고 물결도 잔잔한 때에,
 하늘에 돋은 달이 소나무 위에 걸렸으니,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졌다는 이태백의 일이 야단스럽구나.
 공산에 쌓인 낙엽을 북풍이 걷으며 불어,
 때구름을 거느리고 눈까지 몰아 오니,
 조물주가 일 꾸미기를 좋아하여 옥으로 꽃을 만들어,
 온갖 나무들을 잘도 꾸며 내었구나.
 앞 여울물 가리워 얼고 외나무 다리 걸려 있는데,
 막대를 멘 늘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인가.
 산늬은이의 이 부귀를 남에게 소문내지 마오.
 경요굴 은밀한 세계를 찾을 이가 있을까 두렵도다.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놓고
 만고의 인물들을 거슬러 세어 보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찌 무심하리마는,
 어찌된 시운이 흥했다 망했다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끝이 없다.
 기산의 늘은 고블() 귀는 어찌 씻었던가.
 소리가 난다고 핑계하고 표주박을 버린 허유의 조장이 가장
 높다.
 인심이 얼굴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세상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었그제 비즌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술잔을 잡거니 권하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구나.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을 타자꾸나.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도다.
높고 먼 공중에 떠 있는 학이 이 골의 진선이라.
이전에 달 아래서 혹시 만나지 아니하였는가?
손님이 주인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곧 진선인가 하노라.

잡거니 밀거니 슬꺅장 거후로니

마음의 멍친 시름 쳐그나 흐리느다

거문고 시웁 언저 (풍입송) 이야고야

손인동 主人(주인)인동 다 니저 브러셔라

長空(장공)의 썬는 鶴(학)이 이 골의 眞仙(진선)이라.

瑤臺(요대) 月下(월하)의 흥혀 아니 만나신가

손이셔 主人(주인)드려 닐오되 그되 권가 흥노라.

7. 규원가

(가) 옛그제 저멋더니 흐마 어이 다 늘거니.

(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업다.

늘거야 서른 말씀 흐자니 목이 멘다.

(나) 父生母育(부생모육) 辛辛苦고흐야 이 내 몸 길러 낼 제,

公公候후配배匹필은 못 바라도 君君子자好호迷구 願(원)히더니,

三生(삼생)의 怨원業업이오 月下(월하)의 緣연分분으로

長장安안遊유俠협 경박자(輕薄子)를 꿈근치 만나 잇서,

當時(당시)의 用心(용심)히기 살어름 디디는 듯,

(다) (삼오)二八(이팔) 겨오 지나 天然麗質(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얼굴 이 態度(태도)로 百年期約(백년기약)히얏더니,

年光(연광)이 훌훌히고 造物(조물)이 多다猜시흐야,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雪설鬢빈花화顏안 어딴 두고 面目可憎(면목가증)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입이 날 필소냐.

스스로 慚참愧괴히니 누구를 怨원望망히리.

(라) 三三五五(삼삼오오) 冶야遊유園원의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곳

피고 날 저물 제 定處(정처) 업시 나가 잇어,

白馬(백마) 金금鞭편으로 어딴어딴 머무는고.

遠近(원근)을 모르거니 消息(소식)이야 더욱 알라.

因緣(인연)을 굿쳐신들 싱각이야 업슬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문.

열 두 썩 김도 길샤 설흔 날 支離(지리)하다.

玉窓(옥창)에 심근 梅花(매화) 몇 번이나 띄여 진고.

겨울 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섯거 치고,

옛그제 젊었더니 어찌 벌써 이렇게 다 늙어 버렸는가?

어릴 적 즐겁게 지내던 일을 생각하니 말해야 무었하랴.

이렇게 늙은 뒤에 서러운 사연을 말하자니 목이 멘다.

부모님이 나와 기르며 몹시 고생하여 이내 몸을 길러낼 때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은 바라지 못하더라도 군자의 좋은 짝
이 되기를 원하더니

전생의 지은 원망스러운 업으로 부부의 인연으로

장안의 건달을 꿈같이 만나서

당시의 마음쓰기가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 하였다.

열 다섯 열여섯 살을 겨우 지나 타고난 아름다움이 저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 이 태도로 평생을 약속하였는데

세월이 빨리 지나고 조물주의 시기함이 많아

세월 흐르기가 벼들 사이로 왔다갔다하는 북처럼 빨리 지나
가는데.

눈같이 흰 피부와 꽃같은 얼굴은 어디 가고 늙어 못생긴 얼
굴이 되었구나.

내 얼굴 내가 봐도 어느 님이 나를 사랑 할 것인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여러 사람이 때를 지어 다니다가 술집에 새 애인이 나타났
다는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서

호사스러운 행장을 하고 어디어디 머물러 노는고.

집안에만 있어서 원근 지리를 모르는데 님의 소식이야 알
수 있으랴.

겉으로는 인연을 끊었지만 님에 대한 생각이야 없을 소냐.

임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하루가 길기도 길고 한 달이 지루하기도 하구나.

방 앞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고.

겨울 밤 차고 찬대 진눈깨비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긴 때 굶은 비는 무슨 일이고.
 봄날 온갖 꽃 피우고 버들잎이 돌아나는 좋은 시절의 경치
 도 흥이 없구나.

가을 달 방에 들고 귀뚜라미가 상에서 울 대
 긴 한숨 흘리는 눈물 헛되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돌이켜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 것인가.
 등불을 돌려놓고 거문고를 비스듬히 안아
 벽련화(세레나데) 한 곡조를 시름 섞어 타니
 소상강 밤비에 맺인 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화표 천년에 이별한 학이 우니는 듯,
 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솜씨는 옛날 소리 그대로 인데,
 연꽃 무늬의 휘장을 친 방안이 텅 비어 있으니 누구의 귀에
 들릴 것인가.
 마음속이 구비구비 끊어졌구나.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님을 보려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서 우는 벌레들은
 나와 무슨 원수가 찢길래 잠조차 이루지 못하게 하는가.

하늘의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 막혀있어도
 일년에 한번 칠월 칠석에 만나는 기약을 잊지 않는데
 우리 님 가신 후로는 무슨 약수(이 세상의 어떤 것도 건널
 수 없다는 강)가 가려있기에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난간에 기대어 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고(자기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는 의
 미)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수풀 우거진 푸른 곳에 새소리는 더욱 서럽다.
 세상의 서러운 사람 많다고 하지만
 운 없는 사람이 나와 같은 이 또 있는가.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준 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 好時節(호시절)에 景物(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들 방에 들고 蟋蟀(숙슬)이 床(상)에 울 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마)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 흥여 어이 흥리.

靑燈(청등)을 돌라 노코 綠絳(녹경)기 琴(금) 밧기 안아,

碧壁(벽) 蓮(련)화 한 곡조를 시름 조츠 셋거 타니,

瀟(소)湘(상) 夜(야) 雨(우)의 黛(대)소리 拭(씻)도는 듯,

華表(화표) 千(천)年(년)의 別(별)鶴(학)이 우니는 듯,

玉手(옥수)의 타는 手(수)단 襪(말) 소리 잇다 마는,

芙(부)蓉(蓉) 帳(장) 寂(적)막 흥니 誰(누) 귀에 들리소니.

肝(간) 腸(장)이 九(구) 曲(곡) 되야 구비구비 擘(뺏)쳐서라.

(바) 출하리 잠을 드러 擘(뺏)의나 보려 흥니,

바람의 디는 靄(안개) 풀 속에 우는 蟲(벌레),

무스 일 원수로서 擘(뺏)조차 擘(뺏)오는다.

天(천)上(상)의 牽(견)牛(우) 織(직)녀 銀(은) 河(하)수 막혀서도,

七(칠) 月(월) 七(칠) 夕(석) 一(일) 年(년) 一(일) 度(도) 失(실) 期(기) 擘(뺏)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弱(약)水(수) 가렛관되,

오거나 가거나 消(소) 息(식) 擘(뺏) 擘(뺏)는고.

欄(란) 干(간)의 비겨 서서 님 가신 處(처) 바라보니,

草(초) 露(로)는 擘(뺏)쳐 잇고 暮(모) 雲(운)이 지나갈 제,

竹(죽) 林(림) 푸른 고딕 새 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서룬 사람 수업다 흥려니와,

擘(뺏) 命(명) 흥 紅(홍) 顏(안)이야 날 가트니 擘(뺏) 이실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흥여라.

8. 누항사

(가) 어리고 우환()홀산 이 너 우희 더니 업다.
 길흉 화복(吉凶禍福)을 하늘과 부쳐 두고,
 누항(陋巷) 깃푼 곳의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답히 섭히 되어,
 서 흙 밥 닷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설 데인 숙냉(熟冷)애 빈 배 석일 썬이로다.
 생애 이러하다 장부(丈夫) 뜻을 옮길년가.
 안빈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이셔,
 수의(隨宜)로 살려 하니 날로 조차 저어(齟齬)하.
 그올히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뷘엇거든 병(瓶)의라 담겨시랴.
 빈곤(貧困)호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썬이라.

(나) 기한(飢寒)이 절신(切身)하디 일단심(一丹心)을 이질는가.
 분의 망신(奮義忘身)하야 죽어야 말녀 너겨,
 우탁 우랑(于 于囊)의 줌줌이 모아 녀코,
 병과(兵戈) 오재(五載)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이셔,
 이시섭혈(履尸涉血)하야 몇 백전(百戰)을 지니연고.

(다) 일신(一身)이 여가(餘暇) 잇사 일가(一家)를 도라보랴.
 일노장수(一奴長鬚)는 노주분(奴主分)을 이젓거든,
 고여춘급(告余春及)을 어너 사이 싱각하리.
 경당문노(耕當問奴)인들 놀드려 물릴노고.
 궁경가색(躬耕稼穡)이 너 분(分)인 줄 알리로다.

(라)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옹(隴上耕翁)을 천(賤)타 흐리 업
 것마는,
 아므려 같고전들 어너 쇼로 갈로손고.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은 나보다 더한 이가 없다.
 길흉화복(운명)을 하늘에 맡겨두고
 누추한 깊은 곳에 초가집을 지어두고
 아침저녁 비바람에 썩은 짚이 섭(떨감)이 되어
 세흙 밥 닷흙 죽에 연기도 많기도 많구나.
 설 데운 송늬에 빈 배속을 속일뿐이로다.
 생활이 이러하다고 장부가 품은 뜻을 바꿀 것인가.

가난하지만 편안하여 근심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적을
 망정 품고 있어
 옳은 일을 좇아 살려하니 날이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다.
 가을이 부족하거든 봄이라고 넉넉하며
 주머니가 비었거든 술병이라고 술이 담겨 있겠는가.
 가난한 인생이 이 세상에 나뿐이로다.

굶주리고 헐벗음이 절실하다고 한 가닥 굳은 마음을 잊을
 것인가.
 의에 분발하여 제 몸을 잊고 죽어야 그만 두리라 생각한다.
 전대와 망테에(전쟁할 때 쓰는 무기들을) 줌줌이 모아놓고
 임진왜란 오년동안에 죽고야 말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는 혈전을 몇 백 번이나 지냈던가.

일신이 겨를이 있어서 가족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인가.
 늙은 종은 종과 주인간의 분수를 잊었거든
 하물며 나에게 봄이 돌아 왔다고 알려주는 하인이 있기를
 기대하겠는가.
 밭갈이를 종에게 묻고자 한들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몸소 농사를 짓는 것이 나의 분수인지를 알겠도다.

신야경수와 농상경옹(밭가는 노인)을 천하다고 할 삶이 없건
 마는
 아무리 같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 것인가.

가뭇이 이미 크게 심하여 시절이 다 늦은 때에
서쪽 두둑 위 높은 눈에 잠깐 지나가는 비에
길 위에 흘러내리는 근원 없는 (도상 무원수)물을 반만큼 대
어두고

소 한번 빌려 주마고 탐탁찮게 말을 하던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도 없는 황혼에 허둥지둥 달려가서

굳게 닫힌 문밖에 멀찍이 혼자 서서
큰기침 아함(에헴 소리)을 오랫동안 한 뒤에
“아 거기 누구신가”, “염치없는 내로다” 대답하니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그대 어찌하여 와 계신다.” 하기에
“해마다 이러하기가 염치없는 줄 알지마는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걱정이 많아 왔습니다.” 하니
“공짜로나 값을 치르거나 해서 빌려 줄만도 하다마는
다만 어젯밤에 건너 집 저 사람이
수평 한 마리를 잘 구워내어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기에
이러한 은혜를 어찌 갚지 않겠습니까?”

내일로 빌려 주마하고 약속을 했으므로
미안하지만 안되겠소.”
“사실이 그렇다면 설마 어찌할까?”
헌 갓을 숙여 쓰고 축이 없는 짚신에
맥없이 물러나오니
풍채 작은 모습에 개가 짚을 뽀이로다.

작고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있으랴.
북쪽 창문에 기대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내 원한을 재촉한다.
아침이 마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이 없이 들린다.

한기태심()하야 시절(時節)이 다 느즌 제,

서주(西疇) 눅흔 눈에 잠깐 긴 널비에

도상(道上) 무원수(無源水)를 반만큼 디혀두고,

쇼 흥 적 듀마 흥고 엄섬이 흥는 말삼

친절()호라 너긴 집의 들 업슨 황혼(黃昏)의 허위허위 다라가서,

구디 다둔 문(門) 밧긔 어득히 혼자 서서

기춤 아함이를 양구(良久)토록 흥은 후(後)에,

와 그 뉘신고 엄치(廉恥) 업산 뉘옵노라.

(마) 초경(初更)도 거윈디 그 엇지 와 겨신고.

넌넌(年年)에 이러흥기 구차(苟且)흥 줄 알건마는

쇼 업슨 궁가(窮家)에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공흥이나 갑시나 주엄 즉도 흥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넌 집 저 사람이,

목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읍(玉脂泣)게 꾸어 너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흥거든,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흥넌고.

내일(來日)로 주마 흥고 큰 언약(言約) 흥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흥니 사설이 어러왜라.

실위(實爲) 그러흥면 혈마 어이흥고.

헌 먼덕 수기 스고 즉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 오니,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에 기 즈칠 뿐이로다.

(바)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서 누어시라.

북창(北)을 비겨 안자 식배를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너 한(恨)을 도우는다.

종조(終朝) 추창(惆悵)흥야 먼 들흥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는다.

세정()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느다.
 아까운 저 소뉘는 벗보님도 도홀세고.
 가시 영긴 묵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런마는,
 허당 반벽(虛堂半壁)에 슬디업시 걸려고야
 춘경(春耕)도 거의 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사) 강호(江湖) 흐 솜을 꾸언지도 오리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야 어지버 이저씨다.
 침피기옥(瞻彼淇澳)흔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디 흐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김픈 곳에 명월 청풍(明月清風) 벗이 되야,
 남지 업슨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흐며 말라 흐라.
 다토리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아) 무상(無狀)한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스라.
 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인간(人間) 어너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흐건마는
 너 생애(生涯) 이리호디 설운 뜻은 업노왜라.
 단사표음(單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흐 뜻이 온포(溫飽)애는 업노왜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흐리 뉘 이시리.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디로 살렸노라.

세상 인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느다.
 아까운 저 쟁기는 날도 잘 서있어
 가시가 영긴 묵은 밧도 쉽게 갈 수 있겠지마는
 텅 빈 집 벽 가운데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소가 없어 밧을 갖 수가 없어) 봄갈이도 거의 지났다. (벽에 걸린 쟁기를) 팽개쳐 던져두자.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한 꿈을 꾸지도 오래되더니
 먹고사는 것이 거리낌 이 되어 아 슬프게도 잊었다.
 저 기수의 물가를 보건대 푸른 대나무도 많기도 많구나.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시대 하나 빌려 다오.
 갈대 꽃 깊은 곳에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벗이 되어
 임자가 없는 자연 속 풍월 강산에 저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갈매기야 나더러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겠는가.
 다들 이가 없는 것은 다만 이 자연 뿐인가 하노라.
 보잘것 없는 이 몸이 무슨 소원이 있으리요 마는
 두세 이랑 되는 밧과 논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오 없으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나의 빈천을 싫게 여겨 다른 사람을 헤친다고 그 가난이 없
 어지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다른 사람을 헤친다고 나아지겠는
 가.
 인간 세상에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생겼는가.
 가난하여도 원망하지 않음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활이 이리하되 서러운 뜻은 없다.
 한 도시락의 밥을 먹고 한 바가지의 물을 마시는 어려운 생
 활도 만족하게 여긴다.
 평생에 한 뜻이 따뜻하고 배부른 데는 없다.
 태평스러운 세상에 충성과 효도를 일로 삼아
 형제간에 화목하고 벗끼리 신의 있게 사귀는 일을 그르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밖의 나머지 일이야 생김대로 하리라.



9. 선상탄

늘고 병든 몸을 임금께서 주사로 보내시기에,
을사년 여름에 부산진에 내려오니
국경의 요새지에서 병이 깊다고 가만히 앉아만 있겠는가.
한 자루 긴칼을 비스듬히 차고 전선에 감히 올라

기운을 떨치고 눈을 부릅떠 대마도를 굽어보니
바람을 따라 도는 누런 구름은 멀고 가까운 곳에 싸여 있고
아득한 푸른 물결은 긴 하늘과 한 빛일세.

배 위에 이리 저리 거닐며 예로부터의 일을 생각하며
어리석고 미친 듯한 생각에 배를 처음 만든 헌원씨를 한탄
하노라.

큰 바다가 넓고 아득하여 천지에 둘러 있으니
진실로 배가 아니면 풍파가 많은 만리 밖에서
어느 오락개가 넘볼 것인고. 무슨 일로
배 만들기를 시작하였는가.

장구한 세월의 끝없는 큰 폐단이 되어
온 천하에 만 백성의 원한을 조장한다.

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배가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왜족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일본 대마도로 빈 배가 저절로 나올 것인가?

누구의 말을 곧이 듣고
동남동녀를 그토록 들여서
바다의 모든 섬에 감당하기 어려운 도적을 만들어 두어,

통분한 수치와 모욕이 중국에까지 미친다.
오래 사는 불사약을 얼마나 얻어 내어
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 만 년을 살았는가?

(가) 늘고 병()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낸실식,

을사(乙巳) 삼하(三夏)에 진동영(鎭東營)에 내려오니

관방중지(關防重地)에 병(病)이 깊다 안자실라?

일장검(一長劍) 비기 찌고 병선(兵船)에 구태 올라,

여기진목(勵氣瞋目)하야 대마도(對馬島)을 굽어보니

브람 조친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사혀 있고,

아득한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혼빛칠쇠.

(나) 선상(船上)에 배회(徘徊)하며 고금(古今)을 사역(思憶)하고,

어리미친 회포(懷抱)에 헌원씨(軒轅氏)를 애드노라.

대양(大洋)이 망망(茫茫)하야 천지(天地)에 둘러시니,

진실로 비 아니면 풍파 만리(風波萬里) 맞기,

어너 사이(四夷) 엇볼넌고 무슨 일 하려 하야

비 못기를 비롯하고?

만세천추(萬世千秋)에 ㄱ업슨 큰 폐(弊) 되야,

보천지하(普天地下)에 만민원(萬民怨) 길우는다.

(다) 어즈버 썩드라니 진시황(秦始皇)의 타시로다.

비 비록 있다 하나 왜(倭)를 아니 삼기던들,

일본(日本) 대마도(對馬島)로 빈 비 절로 나올넌가?

뉘 말을 미더 듯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그딴도록 드러다가,

해중(海中) 모든 섬에 난당적(難當賊)을 기쳐 두고,

통분(痛憤)흔 수욕(羞辱)이 화하(華夏)에 다 맞나다.

장생(長生) 불사약(不死藥)을 얼미나 어더 너여,

만리 장성(萬里長城) 높히 사고 몇 만년(萬年)을 사도편고?

남딴죽 죽어 가니 유익()흔 줄 모르로다.
 어즈버 생각하니 서불(徐) 등(等)이 이심(已甚)하다.
 인신(人臣)이 되야져 망명(亡命)도 하는 것가?
 신선(神仙)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주사(舟師)이 시림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라) 두어라, 기왕불구(既往不咎)라 일너 무엇호로소니?
 속절업슨 시비(是非)를 후리쳐 더더 두자.
 잠사각오(潛思覺悟)하니 내 뜻도 고집(固執)고야.
 황제 작주거(黃帝 作舟車)는 윈 줄도 모르로다.
 장한(張翰) 강동(江東)에 추풍(秋風)을 만나신들
 편주(扁舟) 곳 아니 타면 천청해활(天淸海濶)하다.
 어늬 흥(興)이 절로 나며,
 삼공(三公)도 아니 밧골 제일강산(第一江山)애,
 부평(浮萍) ㄹ호 흥 어부생애(漁父生涯)을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어디 부쳐 든힐는고?
(마) 일언 닐 보건딘,
 비 삼긴 제도(制度)야 지묘(至妙)흔 덧하다마는,
 엇디흔 우리 물은 ㄴ는 듯흔 판옥선(板屋船)을
 주야(晝夜)의 빗기 타고, 임풍영월(臨風咏月)호디 흥(興)이 전혀 업
 는게오?
 석일(昔日) 선중(舟中)에는 배반(杯盤)이 낭자(狼藉)터니,
 금일(今日) 주중(舟中)에는 대검장창(大劍長鎗)뿐이로다.
 흥 가지 비언마는 가진 비 다라니,
 기간(其間) 우락(憂樂)이 서로 ㄹ지 못호도다.
(바) 시시(時時)로 멀이 드러 북신(北辰)을 브라보며,
 상시(傷時) 노루(老淚)를 천일방(天一方)의 디이는다.
 오동방(吾東方) 문물(文物)이 한당송(漢唐宋)애 디라마는,

남처럼 죽어 갔으니 유익한 줄 모르겠도다.
 아! 생각하니 서불의 무리가 너무 심하다.
 신하의 몸으로 망명 도주하는 것인가?
 신선을 만나지 못했거든 쉽게나 돌아 왔으면
 통주사(나)의 이 근심은 전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 두어라. 이미 지난 일은 탓하지 않는 것이라는데 말해
 무엇하겠는가?
 아무 소용이 없는 시비를 팽개쳐 던져 버리자.
 깊이 생각하여 깨달으니 내 뜻도 고집스럽구나.
 황제가 처음으로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그릇된 줄도 모르
 겠도다.
 장한이 강동으로 돌아가 가을 바람을 만났다고 한들

 편주를 타지 않으면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고 해도
 흥이 저절로 나겠으며,
 삼공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경치가 좋은 곳에서
 부평초 같은 어부의 생활을
 자그마한 배가 아니면 어디에 부쳐 다니겠는가?

 이런 일 보건대는
 배가 생긴 제도야 지극히 묘한 듯 하다마는
 어찌된 우리는 나는 듯이 빠른 판옥선을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풍월을 읊되 흥취가 전혀 없는고.

 옛날 배 안에는 술상이 어지럽더니
 금일 배 안에는 큰칼과 긴 창뿐이로다.
 배는 한가지인데 지니 바가 다르니
 그 사이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갈지 못하도다.

 때때로 머리를 들어 임금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때를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모퉁이에 떨어뜨리
 는구나.
 우리 나라의 문물이 찬란한 문물을 자랑하던 한나라 당나라
 에 지라마는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왜적들의 흉악한 꾀에 빠져 천추를 두고 씻을 수 없는 부끄
 러움을 안고 있어
 백분의 일이라도 못 씻어 버렸거든
 이 몸이 변변치 못하지만 신하가 되어 있다가

신하와 임금의 신분이 서로 달라 모시지 못하고 늙은들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야 어느 시
 각인들 잊었을 것인가.

강계를 이기지 못하여 씩씩한 기운은 늙으면서 기운이 더욱
 씩씩하다마는
 보잘것없는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분함을 씻고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리기가 어려울 듯
 하건마는
 그러나 죽은 제갈량도 산 증달을 멀리 쫓았고
 발없는 손빈도 발이 성한 방연을 잡았거늘

하물며 이 몸은 손과 발이 성하고 목숨이 이어 있으니
 쥐와 개와 같은 왜적을 조금인들 두려워하겠는가.
 나는 뜻이 빠른 배에 달려들어 선봉을 휘몰아치면
 구시월 상풍에 낙엽 지듯 헤치리라.
 제갈량이 맹획을 마음대로 놓았다 잠은 일(칠종칠금)을 우리
 인들 못할 리 있겠는가.

벌레처럼 꾸물거리는 저 섬나라 오랑개들이(준피도이).
 일른 항복하여 용서를 빌려무나.
 항복하는 자는 죽이지 않나니 너희들을 구태여 모조리 다
 죽이랴.
 우리 임금의 거룩한 덕이 너희와 다 같이 잘 살기를 바라시
 니라.
 태평스러운 천하에 요순시대와 같은 화평한 군민이 되어 있
 어
 광명한 해와 달의 빛이 아침이요, 또다시 아침(임금의 성덕
 이 계속되는 태평세월)인 태평성대가 계속되거든
 전쟁하던 배를 타던 우리 몸도 고기잡이배로 바뀌 타 저녁
 무렵을 노래하고
 가을 달 봄바람에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 있어
 성군치하에 태평성대를 다시 보려 하노라.

국운()이 불행(不幸)하야
 해추(海醜) 흉모(兇謀)에 만고수(萬古羞)를 안고 이셔,
 백분(百分)에 한 가지도 못 시서 버렸거든,
 이 몸이 무상(無狀)흔들 신자(臣子)이 되야 이셔다가,
 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문 피읍고 늘거신들,
 우국 단심(憂國丹心)이야 어너 각(刻)에 이즐넉고?
 (사) 강개(慷慨) 계운 장기(壯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 하다마는,
 도고마는 이 몸이 병중(病中)에 드러시니,
 설분 신원(雪憤伸冤)이 어려울 듯 하건마는,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쫓고,
 발 업슨 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아거든,
 하물며 이 몸은 수족(手足)이 2자 잇고 명맥(命脈)이 이어시니,
 서질 구투(鼠竊拘偷)을 저그나 저홀소냐?
 비선(飛船)에 달려드러 선봉(先鋒)을 거치면,
 구시월(九十月) 상풍(霜風)에 낙엽(落葉)가치 헤치리라.
 칠종칠금(七縱七禽)을 우린들 못 홀 것가?
 (아) 준피도이(蠢彼島夷)들이 수이 결항(乞降) 하야스라.
 항자불살(降者不殺)이니 너를 구타(殲滅)하랴?
 오왕(吾王)성덕(聖德)이 욕병생(欲並生) 하시니라.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요순(堯舜)군민(君民) 되야 이셔,
 일월광화(日月光華)는 조부조(朝復朝)하얏거든,
 전선(戰船) 트던 우리 몸도 어주(漁舟)에 창만(唱晚)하고
 추월춘풍(秋月春風)에 눕히 베고 누어 이셔,
 성대(聖代) 해불양파(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하노라.

10.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

(가)당풍()의 돛출 드라 육선(六船)이 흙의 썬나,
삼현(三絃)과 군악 소리 산해(山海)를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魚龍)들이 응당이 놀라도다.
해구(海口)를 얼핏 나서 오륙도(五六島) 뒤지우고,
고국을 도라보니 야색(夜色)이 창망(蒼茫)하야,
아모것도 아니 뵈고, 연해변진(沿海邊津) 각 포(浦)의
불빛 두어 덤이 구름 맞기 뵈 만하니

(나)비방의 누어 이서 내 신세를 생각해니,
곶득이 심난흔디 대풍이 니러나서
태산 갓튼 성내 물결 텃디의 즈옥하니,
큰나큰 만곡궤(萬斛舟)가 나모넵 브치이듯,
하늘의 올랐다가 디함(地陷)의 느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枒)쳐로 구버 잇고,
선두 북 초석 돛춘 반들쳐로 비블렀니,
궤은 우레 준 별악은 등 아래서 진동하고,
성내 고래 독흔 농은 물 속의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고 잣바지고 엮더지고,
상하 좌우 비방 넓은 넓넵히 우는구나.

(다)이윽고 히 돛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시.
니러나 비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스면을 바라보니 어와 장홀시고,
인칭 텃디간의 이런 구경 또 어디 이실고,
구만 니 우두 속의 큰 물결분이로시
등 뒤호로 도라보니 동녘(東萊) 뵈이 눈섭 궤고,

동남을 도라보니 바다히 궤이 업서,

거센 바람에 돛을 달고 여섯 척의 배가 함께 떠날 때,
악기 연주하는 소리가 산과 바다를 진동하니
물 속의 고기들이 마땅히 놀람직하도다.
부산항을 얼른 떠나 오륙도 섬을 뒤로 하고
고국을 돌아보니 밤빛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연해변에 있는 각 항구의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서 보일 듯 말 듯하다.

선실에 누워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마음이 어지러운데 큰 바람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내 물결이 천지에 자욱하니.
만 석을 실을 만한 큰 배가 마치 나뭇잎이 나부끼듯

하늘에 올랐다가 땅 밑으로 떨어지니,
열두 발이나 되는 쌍돛대는 나뭇가지처럼 굽어 있고
선 두 쪽으로 엮어 만든 돛은 반달처럼 배가 불렀네.
큰 우레 소리와 작은 벼락은 등뒤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성내 고래와 용이 물 속에서 희롱하는 듯하네.
선실의 요강과 타구가 자빠지고 엮어지고
상하 좌우에 있는 선실의 널빤지는 저마다 소리를 내는구나.

이윽고 해가 돛거늘 굉장한 구경을 하여 보세.
일어나 선실 문을 열고 문설주를 잡고 서서,
사면을 바라보니 아아! 굉장하구나.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이 또 어디 있을까?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다만 큰 물결 뿐이로세.
등뒤로 돌아보니 동래의 산이 눈썹만큼이나 작게 보이고
동남쪽을 돌아보니 바다가 끝이 없네.

압호로 썩를 미고 니를 칠티 아났구나..

위아래 푸른 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슬프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디란 말이고?
함께 떠난 다섯 척의 배는 간 곳을 모르겠도다.
사방을 두루 살펴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구나.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배말미를 하여
똥물을 다 토하고 까무라쳐서 죽게 알네.
다행하도다. 종사상은 태연히 앉았구나.

선실에 도로 들어와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가 가깝다고 사공이 말하거늘
다시 일어나 나와 보니 십 리는 남았구나.
왜선 십여 척이 배를 끌러고 마중을 나왔네.

구경하는 왜인들이 산에 앉아 굽어본다.
그 중의 남자들은 머리를 깎았으되
뒤통수만 조금 남겨 고추상투를 하였고
발 벗고 바지 벗고 칼 하나씩 차고 있으며.

일본 여자들의 치장은 머리를 깎지 않고
밀기름을 듬뿍 발라 뒤로 잡아 매어
족두리 모양처럼 둥글게 감았고
그 끝은 돌로 틀어 비녀를 질렀으며
노소와 귀하고 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열레빗을 꽂았구나.

의복을 보아하니 무 없는 두루마기
한 동으로 된 옷단과 막은 소매가 남녀 구별 없이 한가지요.
넓고 크게 접은 띠를 느슨하게 둘러 띠고
늘 쓰는 오든 물건은 가슴 속에 다 품었다.
남편이 있는 여자들은 이를 검게 칠하고
뒤로 띠를 매었고 과부, 처녀, 계집아이는
앞으로 띠를 매고 이를 칠하지 않았구나.

우아리 푸른 빛치 하늘 밧기 다하 있다.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딴로 가는작고.

흙기 썩는 다섯 비는 간 띠를 모를로다.

스면을 두로 보니 잇다감 물결 속의

부채만 차근 돛치 들락날락 흥고나.

선등을 도라보니 저마다 슈질()하야,

똥물을 다토하고 혼절하야 죽게 알너

다흥흥샤 종스상(從使上)은 태연이 안жат고나,

비방의 도로 드러 눈 감고 누엇더니,

대마도 갓깝다고 사공이 니르거늘,

고쳐 니러 나와 보니 십 니는 남았고나.

왜선 십여 척이 예선츄(曳船次)로 모다 왔너

(라)긋 보는 왜인들이 뵈히 안자 구버본다.

그 둥의 스늬히는 머리를 찻가시딕

썩뒤만 쥌금 남겨 고쵸상투 흥여시며

발 벗고 바디 벗고 칼 흥나식 츄 이시며

왜녀(倭女)의 치장들은 머리를 아니 깎고

밀기름 듬뿍 발라 뒤호로 잡아 미야

족두리 모양쳐로 둥글게 꾸여 잇고

그 썩춘 두루 트러 빈혀를 질러시며

무론 노쇼 귀천(老少貴賤)하고 어레빗슬 썩жат구나.

의복을 보와흥니 무업슨 두루막이

흥 동 단 막은 스매 남녀 업시 흥 가지요

넙고 큰 접은 썩를 느죽히 둘러 썩고

일용 범빅(日用凡百) 온갓 거슨 가슴 속의 다 품엇다.

남진 잇는 겨집들은 감아흥게 니[齒]를 칠하고

뒤호로 썩를 미고 과부 처녀 간난히는

11. 연행가

(가)

하 오월 초칠일의 도강 날즈 정혀여네.
 방물을 정검히고 횡장을 슈습혀여
 압록강변 다다르니 송객정이 여기로다.
 의주 부윤 나와 안고 다담상을 츠려 낫코,
 삼 사신을 전별홀시 처창기도 그지없다.
 일빅 일빅 부일빅는 서로 안져 권고하고,
 상스별곡 혼 곡조를 참아 듯기 어려워라.
 장계를 봉헌 후의 썰더리고 이려나서,
 거국지회 그음업서 억제하기 어려운 중
 홍상의 솟눈물이 심회를 돕는도다
 육인교을 물녀 노니 장독교을 등티하고,
 전빅 토인 흐직히니 일산 좌견썩만 잇고,
 공형 급창 물녀서니 마두 셔즈썩이로다.

(나)

일엽 소선 비을 저어 점점 멀이 썩셔 가니,
 푸른 봉은 첩첩혀여 날을 보고 즐기는 듯,
 빅운은 요요하고 광식이 참담하다.
 비치 못홀 이너 마음 오날이 무슴 날고.
 출세홀 지 이십오 년 시호의 즈라나서
 평일의 이츄혀여 오릭 썩나 본 일 업다.
 반 년이나 엇지홀고, 이위정이 어려워며,
 경기 지경 빅 니 밧기 먼 길 단여 본 일 업다.
 허박하고 약흔 괴질 말 이 횡역 걱정일세.
 혼 쥘기 압록강의 양국지경 난화스니,
 도라보고 도라보니 우리 나라 다시 보즈.

여름 5월 7일이 압록강을 건너는 날짜로 정해졌네.
 가지고 갈 물건을 점검하고 여행 장비를 잘 정돈하여
 압록강가에 다다르니 송객정이 여기로구나.
 의주 부윤이 나와 앉아서 다담상을 차려 놓고,

세 사신을 전별하는데 구슬프기도 한이 없다.
 한 잔 한 잔 또 한 잔으로 서로 앉아 권고하고
 상사별곡 한 곡조를 차마 듣기 어려워라.

장계를 봉투에 넣어 봉한 후에 떨뜨리고 일어나서,
 나라를 떠나는 감회가 한이 없어서 억제하기 어려운 중
 여인의 꽃다운 눈물이 마음 속의 회포를 더하게 하는구나.

육인교를 물려 놓으니 장독교를 대령하고
 가마 앞 통인이 하직하니 일산과 말고삐만 잇고,
 삼공형과 급창이 물려서니 마두와 서자만 남았구나.

한 조각 자그마한 배를 저어 점점 멀리 떠서 가니,
 푸른 봉우리는 겹겹으로 쌓여 나를 보고 즐기는 듯,
 흰 구름은 멀리 아득하고 햇살의 빛깔이 참담하다.

어디에도 비하지 못할 이내 마음 오늘이 무슨 날인가?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부모님을 모시고 자라나서
 평소에 부모님 곁을 떠나서 오래 있어 본 적이 없다.
 반 년이나 어찌할 것인가? 부모님 곁을 떠나는 마음이 어려
 우며,

경기도 경계를 백 리 밖으로 벗어나 다녀 본 일이 없다.
 허약하고 약한 기질에 만 리 여행길이 걱정일세.
 한 쥘기 압록강이 두 나라의 경계를 나누었으니 돌
 아보고 돌아보니 우리 나라 다시 보자.

구련성에 다다라서 한 고개를 넘어서니
아까 보던 통군정이 그림자도 아니 보이고
조금 보이던 백마산이 봉우리도 아니 보인다.
백여 리나 되는 사람 없는 곳에 인적이 고요하다.

위험한 만 겹의 산중 뻘뻘이 우거진 나무들이며
적막한 새 소리는 곳곳에 구슬프고
한가한 들의 꽃은 누구를 위해 피었느냐?
아깝도다. 이러한 곳 두 나라가 버린 땅에,
사람도 아니 살고 논밭도 없다 하되.
곳곳이 깊은 골짜기에서 닭과 개 소리가 들리는 듯.
끝없이 이어지는 험한 산세, 범과 표범에게 해를 입을까 겁
이 난다.

밥 짓는 곳에서 상을 차려 점심을 가져오니,
맨 땅에 내려 앉아서 점심을 먹어 보자.
아까까지 귀하던 몸이 어이하여 갑자기 천해져서

오락가락하던 일등 명창과 수정하던 기생은 어디 가고
상에 가득한 좋은 반찬이나 곁들인 반찬도 없지마는,
건량청에서 준 밥 한 그릇을 이렇듯이 달게 먹으니,
가연게 되었지만 어찌 아니 우수우랴.

금석산을 지나가니 온정평이 여기로구나.
날의 형세가 황혼이 되니 한데서 잠자리를 정하자.
세 사신이 자는 곳은 군사들 쓰는 장막을 높이 치고
샷자리를 둘러 막아 임시로 꾸민 방처럼 하였으니,

역관이며 비장 방장 불쌍하여 못 보겠다.
사방에서 외풍이 들이부니 밤 지내기가 어렵도다.
군막이라고 말은 하지만 무명 한 겹으로 가렸으니,
오히려 이번 길은 오뉴월 더운 때라.
하룻밤 지내기가 과히 어렵지 아니하나,

(다)

구련성 다다라서
아까 보든 통군정이
쥬금 뵈든 백마산니
백여 리 무인 지경
위험한 만첩 산중
적막한 식소리는
한가한 들의 꽃은
아깝도다, 이러한 곳
인가도 아니 살고
곳곳지 깊은 골의
왕왕이 험한 산세
쥬방으로 상을 차려
민 쌍의 내려안져
아가가지 귀튼 몸피
일등 명창 진지거릭
만반 진슈 조흔 반찬
건양청 밥 흔 그릇
가이업시 되어스나
금석산 지나가니
일 세가 황혼하니
삼 사신 즈늘 뒤는
샷즈리를 둘러 막아
역관이며 비장 반장
스면 외풍 드러부니
군막이라 명식하니
㊤오이려 이번 길은
하로 밤 경과하니

흔 고기를 너머서니
그림즈도 아니 뵈고,
봉우리도 아니뵈다.
인적이 고요하다.
울밀흔 슈목이며
쳐쳐의 구슬프고,
누을 위히 피었느냐?
양국의 발인 싸의
전답도 업다 하되,
계견 소리 들이는 듯.
호포지환 겁이 난다.
점심을 가져오니,
중화를 하여 보즈.
어이 졸지 천하여서,
슈청 기생 어딴 가고,
겻반도 업스나마,
일엇듯 감식하니,
엇지 안니 우수우랴.
온정평이 여기로다.
흔돈하며 속소흔즈.
군막을 높피 치고,
가방처럼 하여스되,
불상하여 못 보겠다.
밤 지내기 어렵도다.
무명 흔 겹 가려스니,
오늑월 염천이라,
과이 아니 어려오나,

동지선달 긴긴 밤의
 그 고sing 웃더하랴,
 처처의 화톳불은
 밤 식도록 나발 소리
 (라)
 발끼을 기다려서
 목직으로 울을 하고
 봉황성장 나와 안져
 츠례로 드리오니
 녹창 주호 여염들은
 화스 처란 시정들은
 (마)
 집집이 호인들은
 의복기 괴려하여
 머리는 압흘 짝가
 당스실노 당기하고
 일 년 삼백육십 일에
 이 썰은 황금ियो
 거문빗 쳐구리는
 웃고름은 아니 달고
 아청 바지 반물 속것
 두 다리의 흥전 모양
 회목의셔 오금까지
 깃 업슨 청두루막기
 좁은 스미 손등 덤허
 두루막 위에 배자이며
 (바)
 곱방대 옥 물뿌리
 부지까지 썬서 들고
 스람마다 그 모양니

풍설이 드리칠 제
 춤혹들 하다 하데.
 호인 등이 돌너안고,
 즘싱 올라 념예로다.
 적문으로 향히 가니,
 문 하나을 여러 놋코,
 이 마을 점점하며,
 범문신칙 엄절하다.
 오식이 영농하고,
 만물이 변화한다.
 길의 나와 구경하니,
 처음 보기 놀납도다.
 뒤만 싹하 느리쳐서
 말익이을 놀너 쓰며
 양치 한 번 아니하여
 손톱은 다섯 치라.
 깃 업시 지어쓰되,
 단초 다라 입어쓰며,
 허리씩로 놀너 먹고,
 타오구라 일흠 하여,
 회미하게 드리 끼고
 단초가 여러히요,
 손이 겨오 드나들고,
 무릅 우에 슬갑이라.
 담비 너는 주머니의
 뒤집지기 버릇시라.
 천만 인이 한빛시라.

동지선달 긴긴 밤에 바람과 눈이 들이칠 때
 그 고생이 어떠하랴. 참혹하다고들 하데그려.
 곳곳에 피운 화톳불은 하인들이 둘러앉고
 밤새도록 나팔 소리를 낸은 짐승이 올라 염려함이로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책문으로 향해 가니,
 나무로 울타리를 하고 문 하나를 열어 놓고
 봉황성의 장이 나와 앉아 사람과 말을 점검하며,
 차례로 들어오니 문고 경계함이 엄숙하고 철저하다.
 녹색 창과 붉은 문의 여염집은 오색이 영롱하고,
 화려한 집과 채색한 난간의 시가지는 만물이 변화하다.
 집집마다 만주 사람들은 길에 나와 구경하니,
 옷차림이 괴이하여 처음 보기에 놀랍도다.
 머리는 앞을 깎아 뒤만 땀아 늘어뜨려
 당사실로 땀기를 드리고 마래기라는 모자를 눌러 쓰며.
 일 년 삼백육십 일에 양치질 한 번도 아니하여
 이빨은 황금빛이요, 손톱은 다섯 치나 된다.
 검은빛의 저고리는 깃이 없이 지었으며,
 웃고름은 아니 달고 단초 달아 입었으며,
 검푸른 바지와 짙은 남빛 속옷 허리띠로 둘러 매고
 두 다리에 흥전 모양으로 맨 것을 타오구라 이름 하여
 발목에서 오금까지 가뜩하게 들이끼우고
 깃 없는 푸른 두루마기 단추가 여럿이요,
 좁은 소매가 손등을 덮어 손이 겨우 드나 들고
 두루마기 위에 덧저고리 입고 무릎 위에는 슬갑이라.
 곱방대와 옥 물뿌리 담배 넣는 주머니에,
 부지까지 썬서 들고 뒷짐을 지는 것이 버릇이라. 사
 람마다 그 모양이 천만 사람이 한 모습이라.

12. 용부가(庸婦歌)

홍보기가 싫다마는 저 부인의 거동을 보소.
 시집 간 지 석 달만에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 흥을 잡아내네.
 계엄하구나(마음이 어둡고 욕심이 많음) 시아버지에 암상스
 럽구나(남을 미워하고 샘을 잘내는 심술) 시어머니라,
 고자질 잘 하는 시누이와 엄숙한 말동서여,
 요사스럽고 간악한 아우 동서와
 여우같은 시앗년에 드세구나 남편 하인
 들며나며 흠구덕에 남편이나 믿었더니 번 짝은 나무가 되
 었구나.

여기저기 말이 많고 구석구석 모함이라.
 시집살이 못 하겠다며 자살하려고 간수를 마시고
 치마를 쓰고 내닫기도 하고 붓짐을 싸 가지고 도망하기도
 하며,
 오락가락 견디지 못해 스님이나 따라갈까
 긴 담뱃대를 벗삼아서 들 구경이나 하여 볼까,
 점치기로 세월을 보내는구나. 걸으로는 시름에 쌓여 있지만

속으로는 탄 생각에 얼굴 단장으로 일을 삼고
 털 뽑기로 시간을 보낸다. 시부모가 타이르면
 말 한 마디 지지 않고 남편이 나무라면
 뒤받아 대꾸하고 드나드는 초롱꾼에게
 팔자나 고쳐 볼까. 양반 자랑은 모두 하면서
 색쫓집이나 하여 볼까. 남문 밖 뺨덕어미처럼

천생이 저러한가 배워서 그러한가.
 본데없이 자라나서 여기저기 무릎맞춤에
 싸움질로 세월을 보내고 남의 말 옮기기와
 들어 와서는 음식 얘기, 조상은 안중에 없고
 불공 드리기로 일을 삼을 때, 무당 소경을 불러다가 푸닥거
 리 하느라고

(가) 홍보기가 싫다마는 저 부인()의 거동(舉動) 보소
 시집간 지 석 달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 흥을 잡아내네
 계엄할사 시아버니 암상할사 시어미라
 고자질에 시누의와 엄숙하기 말동서여
 요악(妖惡)한 아우 동서 여우 같은 시앗년에
 드세도다 남편 노복(男女奴僕) 들며나며 흠구덕에
 남편(男便)이나 믿었더니 십벌지목(十伐之木) 되었에라

(나)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양이라
 시집살이 못 하겠네 간수병을 기우리며
 치마 쓰고 내닫기와 보뺨 싸고 도망질에
 오락가락 못 견디어 승(僧)들이나 따라갈까
 긴 장죽(長竹)이 벗이 되고 들구경 하여 볼까
 문복(問卜)하기 소일(消日)이라 걸으로는 시름이요
 속으로는 탄 생각에 반분대(半粉黛)로 일을 삼고
 털 뽑기가 세월이라 시부모가 경계(驚戒)하면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남편이 걱정하면
 뒤받아 맞닥수요 들고 나니 초롱꾼에
 팔자나 고쳐 볼까 양반 자랑 모두 하여
 색주가(色酒家)나 하여 볼까 남문 밖 뺨덕어미
 천생(天生)이 저러한가 배워서 그러한가
 본 데 없이 자라나서 여기저기 무릎맞춤
 싸움질로 세월이며 남의 말 말전주와
 들며는 음식(飲食) 공논 조상(祖上)은 부지(不知)하고
 불공(佛供)하기 위업(爲業)할 제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 가지 다 내주고
남편 모양 볼작시면 삽살개 뒷다리오
자식 거동 볼작시면 털 벗은 솔개미라
옛장사야 떡장사야 아이 핑계 다 부르고
물레 앞에 선하품과 씨아 앞에 기지개라
이 집 저 집 이간질과 음담패설(淫談悖說) 일삼는다
모함(謀陷) 잡고 똥 먹이기
세간은 줄어 가고 걱정은 늘어 간다
치마는 절러 가고 허리통이 길어 간다. <후략>

의복들을 다 내주어,
남편 모양을 볼 것 같으면 삽살개 뒷다리처럼 초라하고
자식 모습을 볼 것 같으면 털 빠진 소리개처럼 험뻐했다.
옛장사, 떡장사를 아이 핑계로 다 부르고
물레 앞에서 하품을 하고 씨아 앞에서는 기지개를 켜다.
이 집 저 집 이간질시키고 음담패설하는 것으로 일을 삼는
다.

남을 모함하고 골탕 먹이기,
살림살이는 줄어가고 걱정은 늘어간다.
치마는 짧아 가고 허리통은 길러 간다.

13. 우부가(愚夫歌)

내 말이 미친 소리인가 저 인간을 구경하게.

남촌의 한량 개똥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놓고
호의 호식하지만, 무식하고 미련하고 소견머리가 없는데다
눈은 높고 손은 커서 대중없이 주저넘어,
유행에 따라 옷을 입어 남의 눈만 즐겁게 한다.

긴긴 봄날에 낮잠이나 자고 아침 저녁으로 반찬 투정을 하며
항상 놓고 먹는 팔자로 술집에 무상 출입하여 매일 취해서
게트림을 하고
이리 모여서 노름하기, 저리 모여서 투전질에,
기생첩을 얻어 살림을 넉넉히 마련해 주고 오입쟁이가 친구
로다.

사랑방에는 조방군, 안방에는 뚜쟁이 할머니가 드나들고
조상을 팔아 위세를 떨고 세도를 찾아 기웃기웃하며,
세도를 따라 뇌물을 바치느라고 재산을 날리고
헛된 욕심으로 장사를 하여 남의 빛이 태산처럼 많다.

자기가 무식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진 사람을 미워하며,
후하게 해야 할 곳에는 야박하여 한 푼을 주는 데도 아까워
하고

박하게 해도 되는 곳에는 후덕하여 수백 냥을 낭비한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니 소인들이 비위 맞추느라 배
가 고평 지경이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남의 잘못된 말도 따지지 않고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지만 제 친척들과는 화목하지 못하며,
건강 해칠 일은 모두 하고 인삼 녹용으로 몸 보신하기와,
주색잡기를 모두 하여 한없이 돈을 함부로 쓰네.

부모와 조상은 아주 잊어버리고 계집 자식과 재물만 좋아하
며,

일가 친척을 구박하고 자기가 할 도리는 나중 일이요, 남의
흉만 잡아낸다.

자기 행동은 개차반이면서 경계판을 짚어지고 다니며,

없는 알도 지어내고 시비에 앞장을 선다.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도 물처럼 쓰고 나서 임시 변동하
기에 바쁘고, 손님은 빚쟁이 취급을 하고 사람의 도리는 모른
제한다.

(가) 너 말슴 광언()인가 저 화상을 구경하게.

(나) 남촌 활량(閑良) 기풍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놓고

호의 호식 무식하고 미련하고 용통(用通)하야,

눈은 높고 손은 커서 가랑 업시 주저 넘어

시체(時體)사라 의관하고 남의 눈만 위허것다.

(다) 장장 춘일 낮잠자기 조석으로 반찬 투정

미팔조로 무상 출입 미일 장취 계 트림과

이리 모아 노름 놀기 저리 모아 투전(鬪錢)질에

기생첩 치가(治家)하고 외입쟁이 친구로다.

스랑의는 조방(助幫)군이 안방의는 노구(老嫗)할미.

명조상(名祖上)을 썬세하고 세도 구멍 기웃 기웃,

염낭(炎涼) 보아 진봉(進奉)허기 직업(財業)을 싸불니고

허욕(虛慾)으로 장스허기 남의 빛시 티산이라.

너 무식은 상각 안코 어진 사람 미워허기,

후(厚)헐 데는 박(薄)야셔 한 푼 돈의 짚이 나고,

박(薄)헐 데는 후(厚)야셔 슈빅 량이 헛것시라.

승기자(勝己者)를 염지(壓之)하니 반복 소인(反覆小人) 허기진다.

너 몸에 리(利)헐 디로 남의 말틀 탄치 안코

친구 벗슨 조화허며 제 일가는 불목(不睦)허며,

병 날 노릇 모다 허고 인습 녹용 몸 보(補)키와

주식 잡기 모도 하야 돈 주정을 무진허네.

부모 조상 도망(頓望)허여 계집 즈식 지물 슈탐

일가친척 구박허며 너 인사는 나중이요 남의 흉만 잡아낸다.

너 형세는 기척반에 경계판(警戒板)을 짚어지고

업는 말도 지어 너고 시비의 선봉(先鋒)이라.

날 디 업는 용전 여슈(用錢如水) 상하 텅석(上下擲石)하야 가니

손님은 초곡()이요 윤의(倫義)는 너 물너라.

(라) 입구멍이 제일이라 돈 날 노릇 해야 보세.

전답 파라 변돈 주기, 종을 파라 월슈(月收) 주기

구목(丘木) 버혀 장스허기, 셔척 파라 빗 주기와

동너 상놈 부역이요, 먼 데 사람 헿악이며

줍아오라 씨물너라 즈장격지(自將擊之) 몽둥이질,

전당(典當) 줍고 세간 췌기 계집 문서 종 습기와

살 결박(結縛)에 소 췌기와 불호령에 솟 췌기와

여기저기 간 곳마다 적실 인심(積失人心) 허겟고나.

사람마다 도적이요 원망허는 소리로다. 이스나 해야 불가.

(마)가장(家藏)을 다 파라도 상팔십이 너 팔즈라.

종손 핑계 위전(位田) 파라 투전질이 싱이로다.

제스 핑계 제기(祭器) 파라 관즈 구설(官災口舌) 이러는다.

뉘라셔 도라 불가 독부(獨夫)가 되단 말가

가련타 저 인싱아 일쥌 걸각이라.

딤모 관즈(玳瑁貫子) 어딤 가고 물네줄은 무삼 일고.

통냥갓슨 어딤 가고 헌 파립(破笠)에 통모즈라.

쥬체로 못 먹든 밥 칙넉 보아 밥 먹는다.

양복기는 어딤 가고 쓴바귀를 단 쥬 싸듯,

죽넉고(竹漑膏) 어딤 가고 모쥬 한 잔 어려워라.

울타리가 썰나무요 동너 소곰 반찬일세.

각장 장관 소라 반즈 장지문이 어딤 가고

벽 췌러진 단간방의 거적즈리 열두 님에

호적 조회 문 바르고 신쥬보(神主祿)가 갓슨이라.

은안 준마 어딤 가며 선후 구종(驅從) 어딤 간고.

श्यक 집신 집헿이에 정강말이 체격이라.

습승 보선 티셔히가 어딤 가고 끌레발이 불쌍허고,

비단 쥬머니 십륙스븐 화류 면경(樺榴面鏡) 어딤 가고

보선목 쥬머니에 습노끈 췌어 츄고,

손님은 빗쟁이 취급을 하고 사람의 도리는 모른 체한다.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 돈 나올 일을 하여 보세.

논밭과 종을 팔아서 이자돈 농기.

무덤 가의 나무를 팔아먹고, 셔척을 팔아 빗을 주고.

동네 상놈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먼 데서 온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며.

잡아 오라. 물러가라, 싸움을 걸어 몽둥이질을 하고

전당 잡아 세간을 뺏으며, 계집 문서로 종을 삼고

알몸을 결박하여 소를 뺏고, 불호령으로 솟을 뺏으니.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인심을 자꾸 잃는구나.

사람마다 그를 도적이라 하여 원망하는 소리가 높다.

이것을 피해서 이사나 하여 불가.

집안의 물건을 다 팔아도 오래 살 팔자라.

종손이라고 핑계하고 위전을 팔아 노름하는 것이 일이로다.

제사를 핑계삼아 제기를 팔아먹고서 관가로부터 봉변을 당한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으니 완전히 외톨이가 된단 말인가?

가련하다 저 인생아.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되었구나.

고급스런 관자는 어디 가고 물레줄로 갓끈을 한 것은 무슨 일인가?

통영갓은 어디 가고 찢어진 갓에 통모자를 썼구나.

다 먹지 못할 만큼 밥이 많았는데, 이제는 달력을 보아 가며 밥을 먹는다.

산해진미는 어디 가고 쓴바귀를 단 꿀 먹듯 먹으며.

고급술은 어디 가고 모쥬 한 잔 먹기도 어렵구나.

울타리로 딸감을 삼고 동네 소곰으로 반찬을 하네.

고급스런 장판과 반자 장지문은 다 어디 가고

벽이 허물어진 단간방에 열두 널의 거적을 깔았으며.

호적을 쓴 종이로 문을 바르고 신주 싸는 보자기로 갓끈을 하였구나.

호사스럽게 차린 좋은 말과 앞뒤에 서 모시던 하인은 어디 갔는가?

거칠게 만든 짚신과 지팡이에 두 발로 걷는 것이 제격이라.

삼승 버선과 태사해는 어디 가고 끌레발이 불쌍하며.

비단 주머니, 십륙사끈, 고급 거울은 어디 갔는가?

버선으로 만든 주머니에 삼노끈을 꿰어 차고

담비 모피로 만든 덧저고리, 담비 털로 만든 모자, 비단 두루마기는 어디 갔는가?
동지 선달 추위에 베창옷을 걸쳤으며, 삼복 더위에 두꺼운 바지를 입고
영덩이를 울근불근하며 병신같이 옆걸음질을 치는구나.
담배도 없는 빈 담뱃대를 심심풀이로 손에 들고
비실비실 다니면서 남의 집 문전에 가 걸식하며,
역질이나 제사를 핑계하는 집에 인심이
야박함을 타하면서 팔자를 원망하는구나.

돈피 비즈 담뱃 휘양 어디 가며 룡라 주의 어디 간고.
동지 셋달 베창옷세 슴복다름 바지거죽
궁둥이는 울근불근 옆거름질 병신갓치
담뱃 엮는 빈 연죽을 소일조로 손의 들고
어숙비숙 다니면서 남에 문전 걸식하며
역질 핑계 제스 핑계
야속허다 너의 인심 원망헐스 팔즈타령.

14. 고공가

(가) 집의 옷 밥을 언고 들 먹는 저 (고공)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로느냐.
비오는 날 일 업술 지 솟소면서 니르리라.
처음의 한어버이 사름스리허려 흘 지,
仁心(인심)을 만히 쓰니 사름이 절로 모다,
풀 셋고 터을 닷가 큰 집을 지어 내고,
서리 보십 장기 쇼로 田畝(전답)을 기경(起耕)하니,
오려논 터밭치 여드레 그리로다.
子孫(자손)에 傳繼(전계)하야 代代(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죠커니와 雇工(고공)도 근검(勤儉)터라.

(나) 저희마다 여름 지어 가을여리 사던 것슬,
요스이 雇工(고공)들은 험이 어이 아조 업서,
밥 사발 크나 짜그나 동웃시 죠코 즘나,
막음을 듯호는 듯 호슈을 식오는 듯,
무슴 일 감드려 흘긱할긱 하느슨다.
너희넉 일 아니코 時節(시절) 좃추 소오나와,
긱득의 넉 세간이 플러지게 되야넉,
엇그지 火強盜(화강도)에 家産(가산)이 蕩盡(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붓고 먹을 췌시 전혀 업다.
크나큰 세스(歲事)을 엇지하여 니로려료
金哥(김가) 李哥(이가) 雇工(고공)들아 식 막음 먹어슬라.

(다) 너희넉 절머느냐 험 혈나 아니슨다.
흔 소티 밥 먹으며 매양의 恢恢(회회)하랴.

제 집 옷과 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머슴아,
우리 집 소식(내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말하리라.
처음에 조부모님께서 살림살이를 시작할 때에,
어진 마음을 베푸시니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

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논밭을 기경하니,
올벼논과 텃밭이 여드레 동안 갈 만한 큰 땅이 되었고다.
자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머슴들도 근검하였다.

저희들이 각각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새 머슴들은 생각이 아주 없어서,
밥그릇이 크거나 작거나 입은 옷이 좋거나 나쁘거나,
마음을 다투는 듯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에 감겨 들어서 반목을 일삼느냐?

너희들 일 아니하고 흉년조차 들어서,
가뜩이나 내 살림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엇그제 강도를 만나 가산이 탕진하니,
집은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간살이를 어떻게 해서 일으키려는가?
김가 이가 머슴들아. 새 마음을 먹으려무나.

너희는 젊다 하여 생각하려고 아니하느냐?
한 술에 밥 먹으면서 항상 다투기만 하면 되겠느냐?

너희 일 이드라 흐며서 솟 흥 소리 다 쏘패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농사를 짓자꾸나.
한 집이 부유하게 되면 옷과 밥을 인색하게 하랴?
누구는 쟁기를 잡고 누구는 소를 모니.
밭 갈고 논 갈아서 벼를 심어 던져두고
날카로운 호 미로 김매기를 하자꾸나.
산에 있는 밭도 잡초가 우거지고 무논에도 풀이 무성하다.

도롱이와 샷갓을 말뚝에 씌워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벼 곁에
세워라.
칠월 칠석에 호미 씻고 기음을 다 맨 후에,
새끼는 누가 잘 꼬며 섬은 누가 엮겠는가?
너희들의 재주를 헤아려 서로 서로 말아라.
추수를 한 후에는 집 짓는 일을 아니하랴?
집은 내가 지을 것이니 움은 네가 묻어라(만들어라).

너희 재주를 내가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고 살 일을 깊이 생각하려무나.
명석에 벼를 넣어 말린들 좋은 해를 구름이 가려 햇볕을 언
제 보겠느냐?
방아를 못 짙는데 거칠고도 거친 올벼가,
옥같이 흰 쌀이 될 줄을 누가 알아 보겠는가?

너희들 데리고 새 살림을 살고자 하니,
엇저제 왔던 도적이 멀리 달아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귀와 눈이 없어서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방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옷과 밥만 가지고 다투느냐?
너희들을 데리고 행여 추운가 굶주리는가 염려하며,

죽조반 아침 저녁을 다 해다가 먹었는데,
은혜는 생각지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사려 깊은 새 머슴을 어느 때에 얻어서,
집안 일을 맡기고 걱정을 잊을 수 있겠는가?
너희 일을 애달파하면서 새끼 한 사리를 다 꼬았도다.

흥 믿음 흥 뜻으로 티름을 지어스라.
흥 집이 가을열면 옷 밥을 (분별)하랴.
누고는 장기 잡고 누고는 쇼을 몰니,
밭 갈고 논 살마 벼 세워 더져 두고,
날 도흔 호미로 기음을 먹야스라.
山田(산전)도 것즈러고 무논도 기워 간다.
사림피 물목 나서 벗 겨터 세울세라.
七夕(칠석)의 호미 씻고 기음을 다 맨 후의,
솟 쏘기 닦 잘 흐며 섬으란 닦 엮그랴.
너희 직조 세아려 자라자라 맞스라.
꺾을 거둔 후면 成造(성조)를 아니하랴.
집으란 내 지으게 움으란 네 무더라.
너희 직조를 내 斟酌(짐작)하엿노라.
너희도 머글 일을 分別(분별)을 하려므나.
명석의 벼를 언들 도흔 히 구름 끼여,
벗뉘을 언직 보랴. 방하을 못 씨거든 거즈나 거즌 오려,
옥 굿튼 白米(백미) 될 줄 닦 아라 오리스니.

(라) 너희너 드리고 새 소리 사자 하니,
엇저지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니,
너희너 귀는 업서 저런 줄 모르관디,
화살을 전혀 언고 옷 밥만 닳토는다.

너희너 다리고 틱는가 주리는가.
粥早飯(죽조반) 아침 저녁 더하다 먹엿거든,
은혜란 싱각 아녀 제 일만 하려 하니,
험 혜는 새 들이리 어너 제 어더 이셔,
집 일을 맞치고 시름을 니즈려뇨.

15. 고공담주인가

(가) 어와 저 양반아 도라안자 내 말 듯소

엇지흔 저문 소니 험업시 단니순다

마누라 말숨을 아니 드러 보느순다

나는 일열탄덩 외방의 늙은 종이

공밧치고 도라갈적 흐는 일 다 보았네

우리 덕 세간이야 네뵈터 이러튼가

전민이 만탄 말리 일국에 소리나데

먹고 입는 드난종이 백여구 나마시니

므슴 일 흐노라 터밧출 무겨논고

농잔 엷다 흐는가 호미연장 못갓던가

날마다 무슴흐려 밥먹고 단기면서

열나모 정자 아티 낫잠만 자느순다

(나) 아히들 타시런가 우리 덕 종의 버릇

보거든 고이헉데

쇼먹이는 으히드리 상마름을 능욕하고

진지흐는 어린 손넉 하 계대를 기롱한다

썩썩을 제급 못고 에에고 제 일 하니

흔 집의 수한 일을 뉘라서 심뵈 흘고

곡식고 비엿거든 고직인들 어이 하며

세간이 흐터지니 될자힌들 어이 흘고

내 윈 줄 내 몰나도 남 윈 줄 모를넉가

풀치거니 밧치거니 할거니 돕거니

흐로 열두 썩 어수선 핀거이고

밧별감 만하 이스 외방사음 도원화도

제 소임 다 버리고 몸 쓰릴 썩이로다

아어 저 양반아 돌아왔아 내 말 들소.

어떠한 젊은 손이 썩없이 다니는가?

주인님 말숨을 아니 들어 보았는가?

나는 이럴망정 외방의 늙은 종이

공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 다 보았네.

우리 덕 세간이야 예부터 이렇던가?

전민이 만탄 말이 일국에 소리 나데.

먹고 입는 드는 종이 백여구 남았으니.

무슨 일 하느라 터밧을 묵였는가?

농장이 엷다던가? 호미 연장 못 가졌나?

날마다 무엇하려 밥 먹고 다니면서

열나무 정자 아래 낫잠만 자는가?

아이들 탓이던가? 우리 덕 종의 버릇

보노라면 이상하데.

쇼 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진지하는 어린 손들 한 계대를 기롱한다.

뺨돌린 재물로 재산을 모으고, 탄길로 제 일하니.

한 집의 많은 일을 누가 힘써 할까?

곡식창고 비엿거든 고직인들 어이 하며.

세간이 흐어지니, 용기인들 어이 할까?

내 윈 줄 내 몰라도 남 윈 줄 모를넉가?

풀치거니 밧치거니, 흘뜰거니 돕거니.

하루 열 두 때 어수선 핀 것인가?

밧별감 많이 있어야 외방마름 도달화도

제 소임 다 버리고, 몸 꺼릴 썩이로다.

비 새어 썩은 집을 누가 고쳐 이으며,
 옷 벗어 무너진 담 누가 고쳐 쌓을까?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리 다니거든
 화살 찬 수하상직 누가 힘써 할까?

크나큰 기운 집에 상전님 혼자 앉아
 명령을 뉘 들으며 논의를 뉘와 할까?
 낫시름 밤근심 혼자 맡아 계시거니,
 옥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뉘 탓이라 할 것인가?
 셈없는 종의 일은 묻도 아니하려니와
 도리어 생각하니, 상전의 탓이로다.
 내 생전 외다 하기 종의 죄 많건마는
 그렇다 세상 보며 민망하여 여쭙니다.

새끼꼬기 말으시고, 내 말씀 드르소서.
 집일을 고치거든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믿으소서.
 진실로 이리 하시면, 가도 절로 일겁니다.

비식여 서근 집을 뉘라셔 곳쳐 이며
 옷 버셔 무너진 담 뉘라셔 곳쳐 쌓고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리 다니거든
 화살 찬 수하상직 뉘라셔 심써 홀고

큰니 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즈 안자
 기결을 뉘 드르며 논의를 놀라 홀고
 낫시름 밤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옥 곱튼 얼굴리 편하실 적 면 날이리

(다) 이 집 이리 되기 뉘 타시라 흘셔이고

셈 업는 종의 일은 못도 아니 흐려니와
 도로혀 헤여흐니 마누라 타시로다
 너 향것 외다 흐기 종의 죄 만컨마는

그러타 뉘을 보려 민망하야 읍노이다
 솟꼬기 마르시고 내 말씀 드르쇼셔

집 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벌키시고
 상벌을 벌키거든 어른종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 흐시면 가도 절노 날니이다.